



NABO 산업동향 & 이슈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CONTENTS

산업 동향

산업 이슈 |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의 의의와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산업동향 & 이슈

총괄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기획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조정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조은영	경제분석관
작성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조은영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이진희	경제분석관
지원	양희열	행정실무원
	이아라	자료분석연구원

- 「NABO 산업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 (☎ 02-6788-378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산업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산업동향 & 이슈

C O N T E N T S

I 산업생산

1. 전산업	08
2. 제조업	12
3. 서비스업	23

II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30
2.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39
3. 가공단계별 수출	40

III 에너지·원자재

1. 에너지	42
2. 비철금속	50
3. 농산물	51

IV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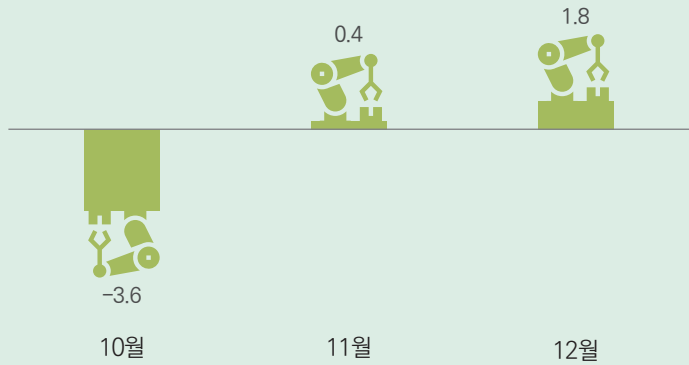
1. 배출권거래	52
2. 재활용가능자원	55

V 산업 이슈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의 의의와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5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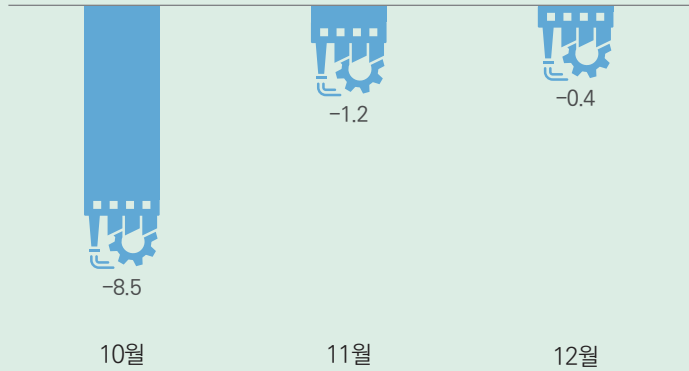
전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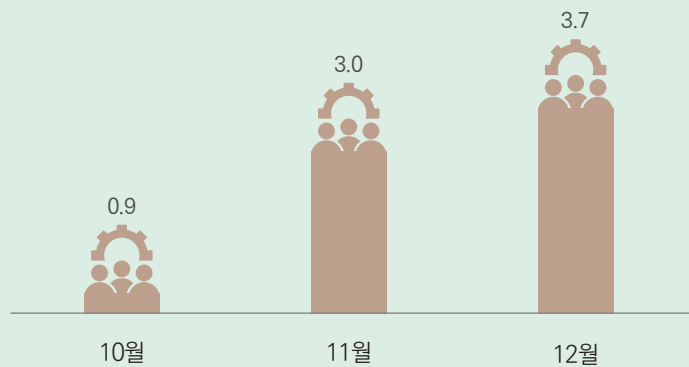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산업동향 & 이슈 종합

- 최근 대외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가와 서비스업의 생산 확대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

2025년 12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의 재고 조정, 철강과 자동차의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의 생산은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개선

- (전산업 생산) 2025년 1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전월대비 1.5%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3.6 → (11월) 0.4 → (12월) 1.8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5.10월) -2.6 → (11월) 0.9 → (12월) 1.5
- (제조업 생산) 2025년 12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전월대비 1.9%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8.5 → (11월) -1.2 → (12월) -0.4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5.10월) -4.3 → (11월) 0.9 → (12월) 1.9
- (서비스업 생산) 2025년 1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7%, 전월대비 1.1%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0.9 → (11월) 3.0 → (12월) 3.7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5.10월) -0.5 → (11월) 0.5 → (12월) 1.1
- (건설업 생산) 2025년 12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2% 감소, 전월대비 12.1% 증가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 ('25.10월) -24.4 → (11월) -16.6 → (12월) -4.2
 - 건설업(전월대비, %): ('25.10월) -20.7 → (11월) 6.7 → (12월) 12.1
- (수출) 2026년 1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525.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7.1% 증가
 - 수출액(억달러): ('25.11월) 476.0 → (12월) 550.0 → ('26.1월) 525.0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1월) 7.3 → (12월) 13.7 → ('26.1월) 37.1
- (에너지 및 원자재) 2026년 1월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0.3%, 8.9% 하락, 비철금속은 전년동월대비 30.2% 상승
 - 에너지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13.0 → (12월) -14.1 → ('26.1월) -10.3
 - 비철금속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11.9 → (12월) 19.2 → ('26.1월) 30.2
 - 농산물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4.7 → (12월) -8.3 → ('26.1월) -8.9
- (환경) 2025년 12월 「지표배출권(KAU25)」 증가는 전월대비 5.5% 하락, 거래량은 전월 대비 53.7%증가
 - KAU25 증가(원/톤): ('25.10월) 10,400 → (11월) 11,000 → (12월) 10,400
 - KAU25 거래량(천톤): ('25.10월) 4,568 → (11월) 5,237 → (12월) 8,049

주요 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원/달러, %)

	2024			2025						2026
	연간	3Q	4Q	연간	2Q	3Q	4Q	11월	12월	1월
전산업생산	1.5	0.5	0.6	0.5	0.3	2.9	-0.3	0.4	1.8	-
제조업생산	4.2	2.2	3.7	1.6	2.3	6.1	-3.3	-1.2	-0.4	-
서비스업생산	1.1	0.2	0.6	1.9	1.4	3.2	2.6	3.0	3.7	-
소매판매액	-2.1	-1.5 (0.7)	-2.0 (-0.4)	0.5	-0.2 (-1.0)	1.5 (1.5)	0.8 0.8	0.8 (-3.2)	1.2 (0.9)	-
설비투자지수	2.9	11.5 (10.2)	5.3 (-1.8)	1.7	5.6 (0.3)	1.9 (5.7)	-5.4 (-7.9)	-0.2 (1.7)	-10.3 (-3.6)	-
건설기성액	-4.7	-9.1 (-3.8)	-9.7 (-5.1)	-16.2	-17.5 (-3.3)	-11.8 (2.7)	-14.3 (-8.7)	-16.6 (6.7)	-4.2 (12.1)	-
수출(통관)	8.1	10.5	4.2	3.8	2.1	6.5	8.4	8.0	13.3	33.9
13대 산업	10.4	13.1	4.4	3.3	0.9	6.1	8.9	7.3	13.7	37.1
수입(통관)	-1.7	6.2	0.9	0.0	-1.7	1.5	1.4	1.1	4.6	11.7
경상수지(억달러)	999.7	262.9	320.6	1,230.5	283.9	360.1	391.7	129.0	187.0	-
소비자물가	2.3	2.1	1.6	2.1	2.1	2.0	2.4	2.4	2.3	2.0
취업자수 증감(천명)	160	146	52	193	207	216	195	225	168	108
실업률	2.8	2.2	2.8	2.8	2.8	2.2	2.9	2.2	4.1	4.1
원/달러환율	1,473	1,308	1,473	1,439	1,350	1,403	1,439	1,471	1,439	1,440
국고채금리(3년)	3.11	2.97	2.79	2.57	2.39	2.45	2.84	2.88	3.01	3.04

주: 1.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는 기간 평균
 3.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I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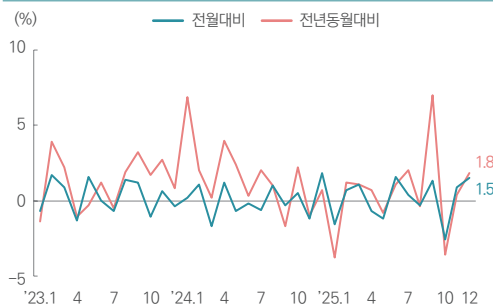
1

전산업

■ 2025년 1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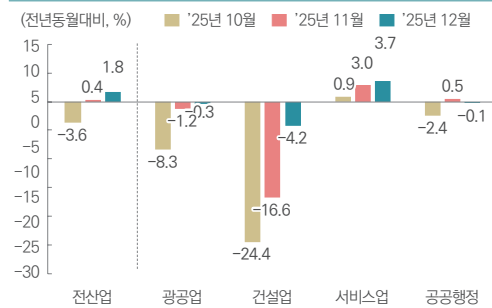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전월대비 1.5%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3.6 → (11월) 0.4 → (12월) 1.8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5.10월) -2.6 → (11월) 0.9 → (12월) 1.5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서비스업(3.7%)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4.2%), 광공업(-0.3%), 공공행정(-0.1%)은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건설업(12.1%), 광공업(1.7%), 서비스업(1.1%)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공공행정(-2.6%)은 감소

| 그림 1 |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그림 2 |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2025년 12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조선(38.3%), 컴퓨터·주변장치(14.9%), 무선통신기기(6.2%), 석유(4.7%), 섬유(3.7%)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가전(-9.4%), 철강(-3.2%), 일반기계(-2.6%), 자동차(-2.5%), 화학(-1.6%), 반도체(-0.3%) 등이 줄며 0.4% 감소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8.5 → (11월) -1.2 → (12월) -0.4

- 전월대비: 자동차(-2.8%), 무선통신기기(-2.3%) 등의 생산은 줄었으나, 가전(6.1%), 섬유(5.4%), 조선(4.2%), 석유(3.5%), 반도체(2.9%), 철강(2.9%), 일반기계(2.6%), 컴퓨터·주변장치(1.6%), 화학(0.6%) 등의 생산이 늘며 1.9% 증가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5.10월) -4.3 → (11월) 0.9 → (12월) 1.9

| 표 1 | 제조업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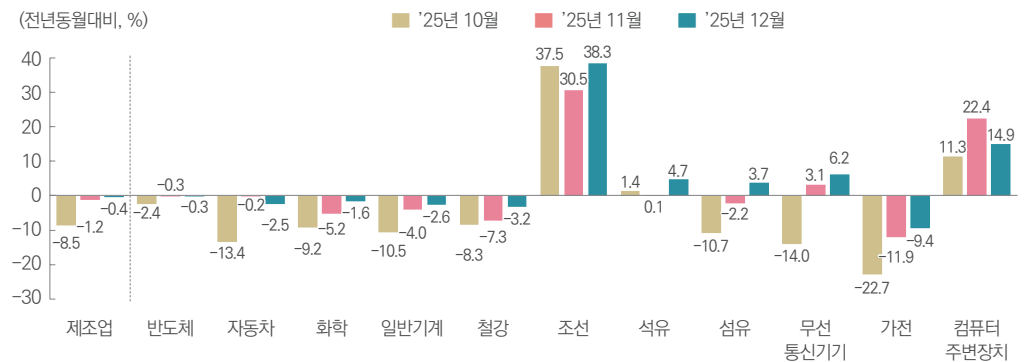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전월대비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제조업(원지수)	116.2	114.7	121.7	106.3	113.3	121.2	1.9
제조업	6.6	-0.1	4.9	-8.5	-1.2	-0.4	
반도체	16.9	11.4	13.6	-2.4	-0.3	-0.3	2.9
자동차	4.5	-6.5	1.7	-13.4	-0.2	-2.5	-2.8
화학	7.3	1.1	2.2	-9.2	-5.2	-1.6	0.6
일반기계	7.7	-0.3	0.1	-10.5	-4.0	-2.6	2.6
철강	-3.2	-0.9	-0.7	-8.3	-7.3	-3.2	2.9
조선	27.8	21.0	34.7	37.5	30.5	38.3	4.2
석유	-6.4	-2.7	-2.2	1.4	0.1	4.7	3.5
섬유	6.1	-2.7	3.4	-10.7	-2.2	3.7	5.4
무선 통신기기	0.9	-13.7	13.3	-14.0	3.1	6.2	-2.3
가전	5.7	-4.4	6.9	-22.7	-11.9	-9.4	6.1
컴퓨터 주변장치	-35.8	-19.3	-2.3	11.3	22.4	14.9	1.6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그림 3 | 제조업 생산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25년 1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업(-0.8%)은 줄었으나, 도소매업(9.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5%), 금융·보험업(3.6%), 운수창고업(2.4%), 정보통신업(2.2%),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0%), 숙박 및 음식점업(0.4%) 등이 늘어 3.7%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0.9 → (11월) 3.0 → (12월) 3.7
- 전월대비: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4%), 숙박·음식점업(-2.1%), 정보통신업(-2.0%) 등은 줄었으나, 도소매업(4.6%), 운수창고업(2.0%), 부동산업(1.1%), 금융·보험업(0.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0.2%) 등이 늘며 1.1%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5.10월) -0.5 → (11월) 0.5 → (12월) 1.1

| 표 2 | 서비스업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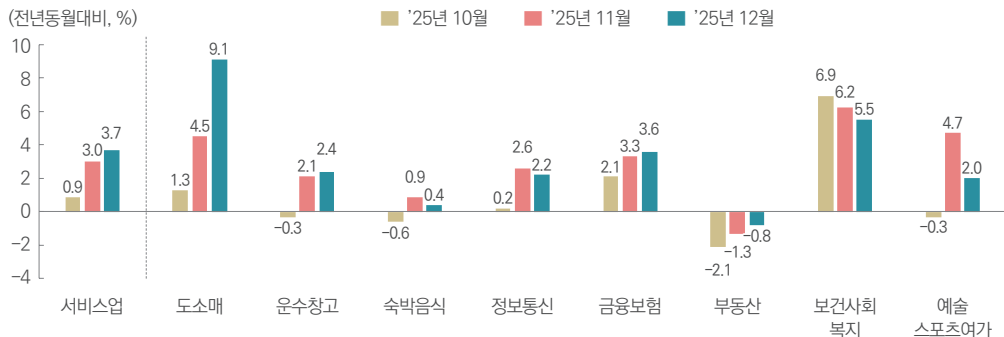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전월대비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서비스업(원지수)	117.2	117.4	131.5	118.3	120.9	136.4	1.1
서비스업	1.5	0.1	0.4	0.9	3.0	3.7	
도매 및 소매업	0.8	-3.9	-1.4	1.3	4.5	9.1	4.6
운수 및 창고업	6.2	6.7	7.5	-0.3	2.1	2.4	2.0
숙박 및 음식점업	-2.0	-0.3	-2.8	-0.6	0.9	0.4	-2.1
정보통신업	1.2	0.2	-2.5	0.2	2.6	2.2	-2.0
금융 및 보험업	4.2	3.5	1.5	2.1	3.3	3.6	0.9
부동산업	-4.3	-2.1	0.5	-2.1	-1.3	-0.8	1.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	2.7	4.1	6.9	6.2	5.5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4	0.5	-6.6	-0.3	4.7	2.0	-4.4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 | 서비스업 생산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2025년 12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20개월 연속 감소(-4.2%)하였고, 부문별로는 건축(-4.1%)과 토목(-4.6%)이 모두 감소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 ('25.10월) -24.4 → (11월) -16.6 → (12월) -4.2
 - 건축(전년동월대비, %): ('25.10월) -26.3 → (11월) -15.6 → (12월) -4.1
 - 토목(전년동월대비, %): ('25.10월) -18.6 → (11월) -19.2 → (12월) -4.6
- 전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증가(12.1%)하였고, 부문별로는 건축(13.7%)과 토목(7.4%)이 모두 증가
 - 건설업(전월대비, %): ('25.10월) -20.7 → (11월) 6.7 → (12월) 12.1
 - 건축(전월대비, %): ('25.10월) -22.2 → (11월) 9.4 → (12월) 13.7
 - 토목(전월대비, %): ('25.10월) -16.5 → (11월) -0.5 → (12월) 7.4

| 표 3 | 건설업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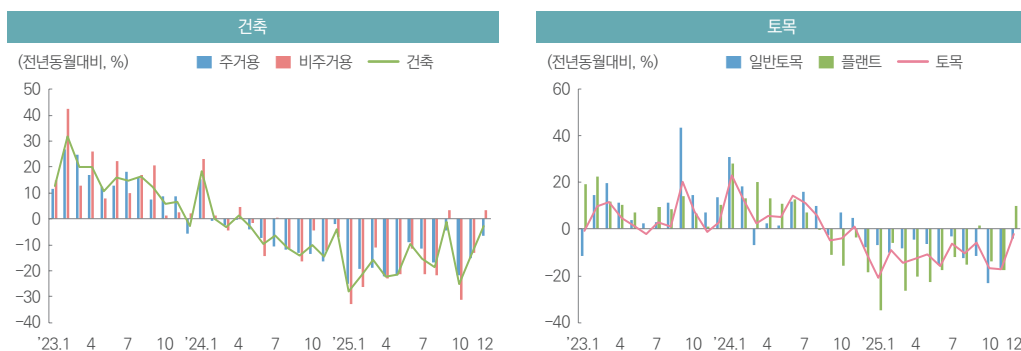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전월대비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건설업(생산액)	10.6	11.0	13.3	8.0	9.2	12.7	12.1
건설업	-9.6	-12.3	-7.3	-24.4	-16.6	-4.2	
건축	-10.9	-15.9	-5.1	-26.3	-15.6	-4.1	
토목	-5.1	-0.2	-11.9	-18.6	-19.2	-4.6	7.4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5 | 공종별 건설업 기성액(경상) 추이



주: 1. 건축은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성되고, 토목은 일반토목, 플랜트, 전기기계, 조경공사로 구성되나, 전기기계, 조경공사는 토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이를 제외함

2. 세부 공종에 대한 건설기성액은 불변기준으로 공표되지 않으므로 경상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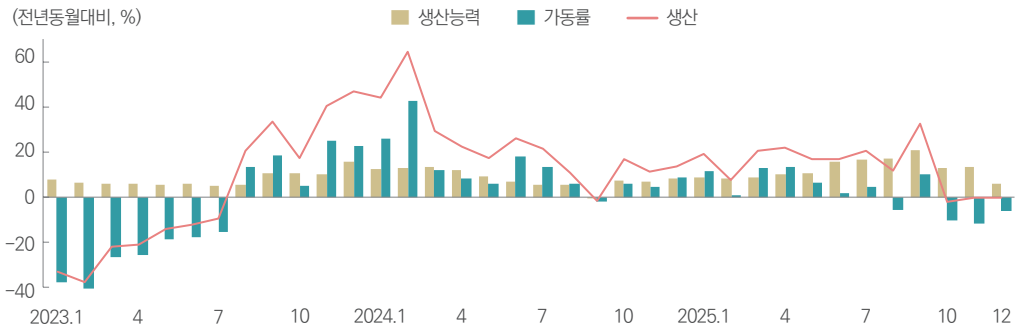
제조업

■ 반도체: 전년동월대비 12월 「생산」과 「재고」가 감소

• 12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4 → (11월) -0.3 → (12월) -0.3
- 가동률¹⁾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0.6 → (11월) -11.8 → (12월) -6.4
- 생산능력²⁾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2.7 → (11월) 13.1 → (12월) 6.0

| 그림 6 | 반도체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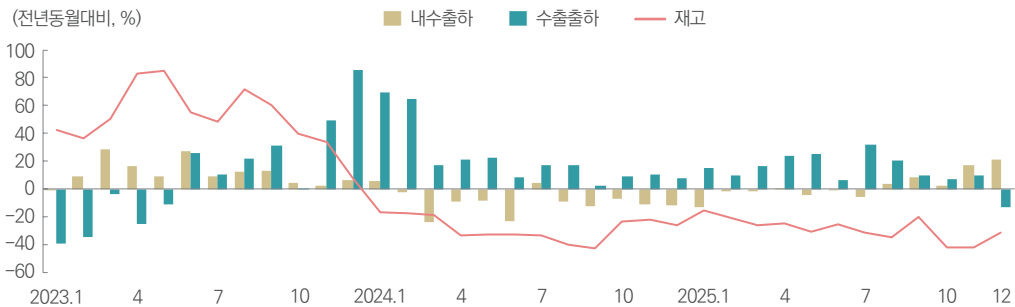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12월 반도체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1.5%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42.1 → (11월) -42.3 → (12월) -31.5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7 → (11월) 17.4 → (12월) 21.1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7.5 → (11월) 9.8 → (12월) -13.1

| 그림 7 | 반도체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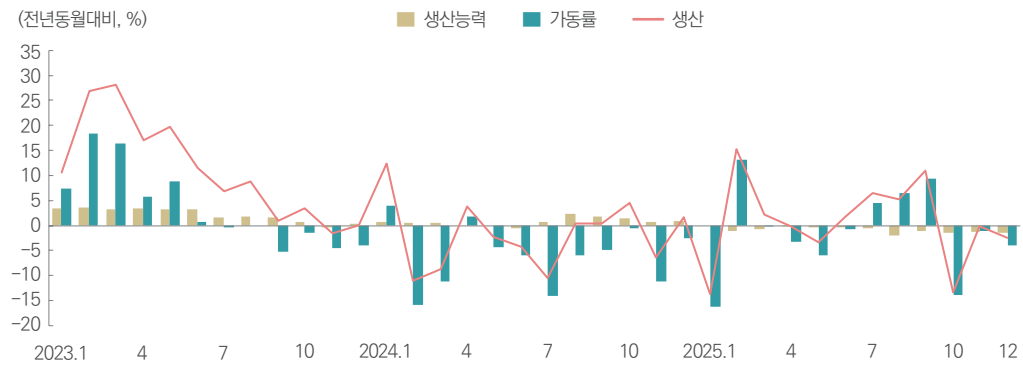
1) 가동률은 실제 생산실적을 생산능력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

2) 생산능력은 통상적인 작업 조건하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의미

■ 자동차: 전년동월대비 12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12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5%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3.4 → (11월) -0.2 → (12월) -2.5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3.9 → (11월) -1.0 → (12월) -3.9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4 → (11월) -1.3 → (12월) -1.4

[그림 8] 자동차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12월 자동차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9.1 → (11월) 5.0 → (12월) 7.8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4.7 → (11월) -2.4 → (12월) -1.1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2.5 → (11월) 5.3 → (12월) -5.1

[그림 9] 자동차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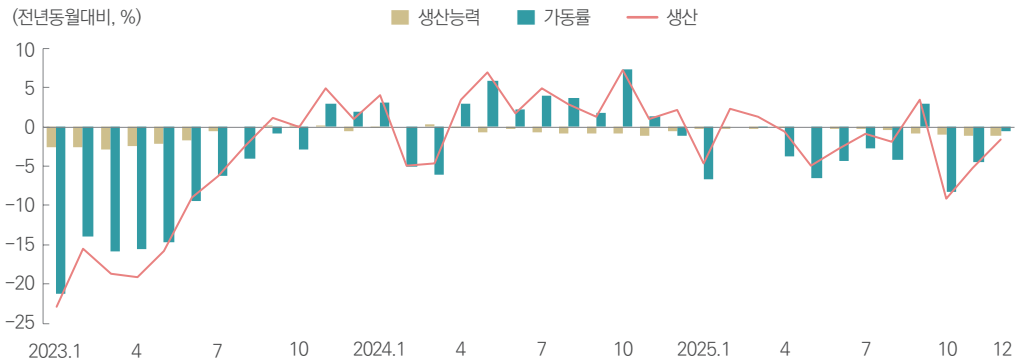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화학: 전년동월대비 12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12월 화학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9.2 → (11월) -5.2 → (12월) -1.6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8.3 → (11월) -4.5 → (12월) -0.6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0 → (11월) -1.2 → (12월) -1.2

| 그림 10 | 화학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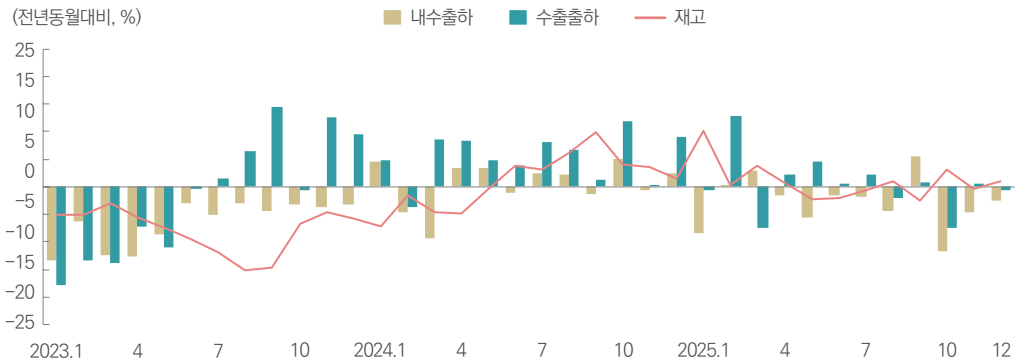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12월 화학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3.1 → (11월) -0.3 → (12월) 1.1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1.7 → (11월) -4.5 → (12월) -2.5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7.5 → (11월) 0.6 → (12월) -0.7

| 그림 11 | 화학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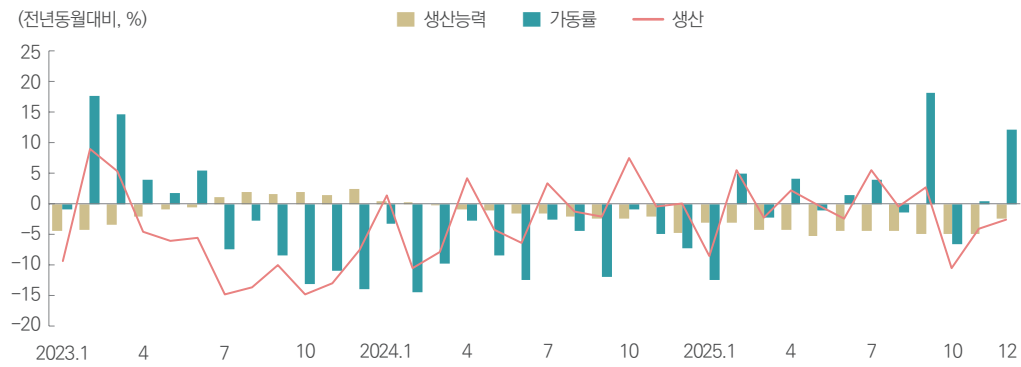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일반기계: 전년동월대비 12월 「생산」과 「재고」가 감소

- 12월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6%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0.5 → (11월) -4.0 → (12월) -2.6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6.5 → (11월) 0.5 → (12월) 12.2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4.9 → (11월) -4.9 → (12월)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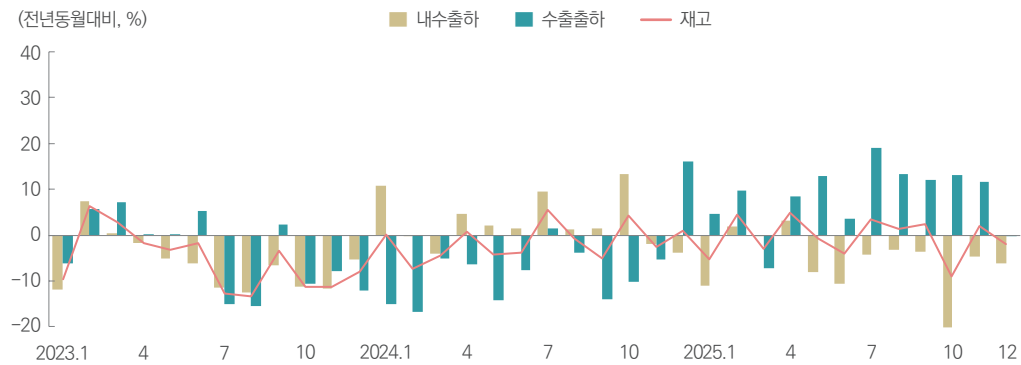
[그림 12] 일반기계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12월 일반기계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9.0 → (11월) 2.2 → (12월) -1.8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0.0 → (11월) -4.7 → (12월) -6.1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3.1 → (11월) 11.7 → (12월) -0.2

[그림 13] 일반기계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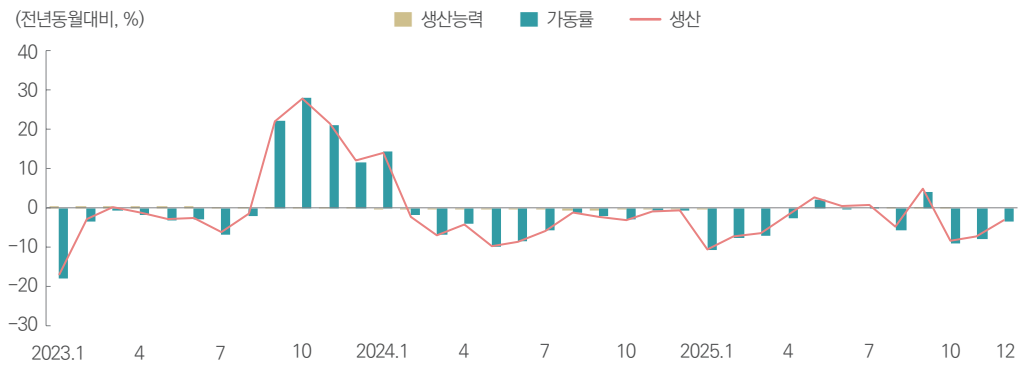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철강: 전년동월대비 12월 「생산」과 「재고」가 감소

• 12월 철강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2%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8.3 → (11월) -7.3 → (12월) -3.2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8.9 → (11월) -7.8 → (12월) -3.5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0.2 → (11월) 0.1 → (12월) -0.4

| 그림 14 | 철강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12월 철강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3 → (11월) -1.9 → (12월) -5.3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2.4 → (11월) -8.0 → (12월) -4.7

| 그림 15 | 철강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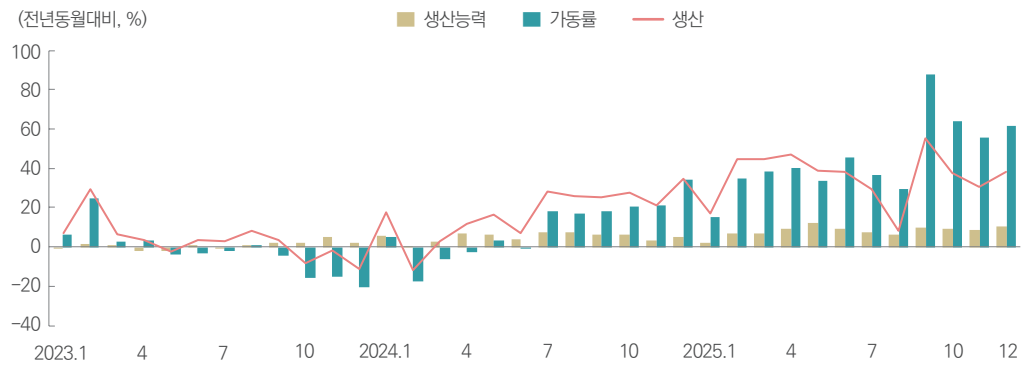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조선: 전년동월대비 12월 「생산」과 「출하」가 증가

- 12월 조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8.3%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37.5 → (11월) 30.5 → (12월) 38.3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64.1 → (11월) 55.7 → (12월) 61.7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9.4 → (11월) 8.6 → (12월)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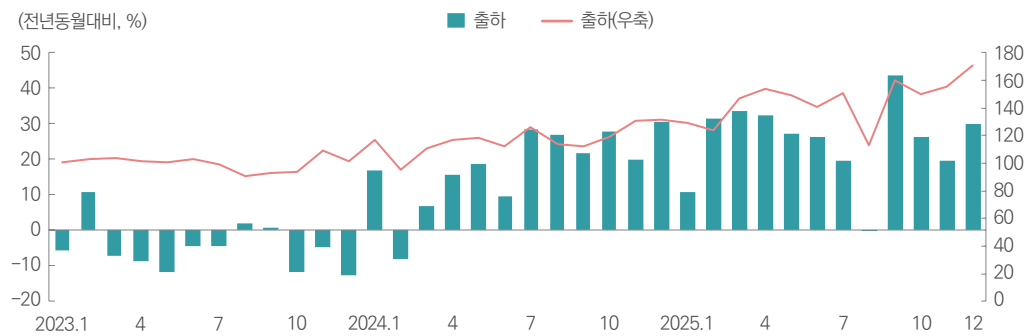
| 그림 16 | 조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12월 조선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29.8% 증가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6.0 → (11월) 19.4 → (12월) 29.8
 - 출하(2020년=100): ('25.10월) 149.4 → (11월) 155.1 → (12월) 170.2

| 그림 17 | 조선 산업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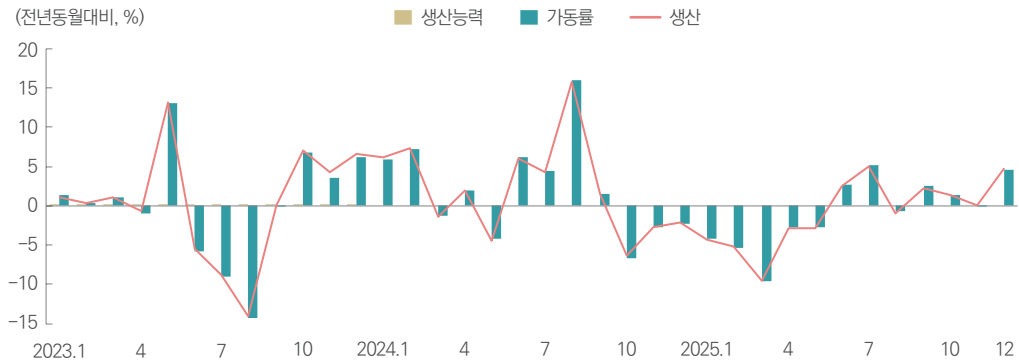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석유: 전년동월대비 12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 12월 석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4 → (11월) 0.1 → (12월) 4.7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4 → (11월) -0.1 → (12월) 4.5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0.0 → (11월) 0.0 → (12월) 0.0

| 그림 18 | 석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12월 석유 산업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8.1 → (11월) -3.5 → (12월) -0.3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4.5 → (11월) -3.3 → (12월) 1.0

| 그림 19 | 석유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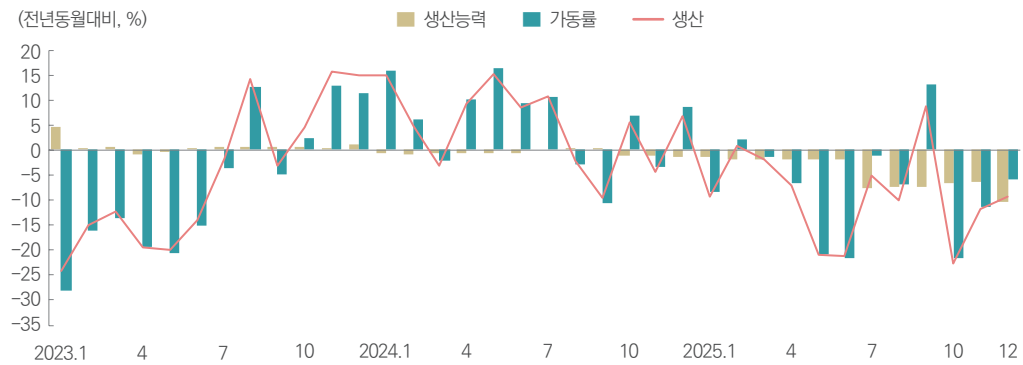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가전: 전년동월대비 12월 「생산」과 「재고」가 감소

• 12월 가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4%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2.7 → (11월) -11.9 → (12월) -9.4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1.6 → (11월) -11.4 → (12월) -5.9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6.5 → (11월) -6.4 → (12월) -10.3

| 그림 20 | 가전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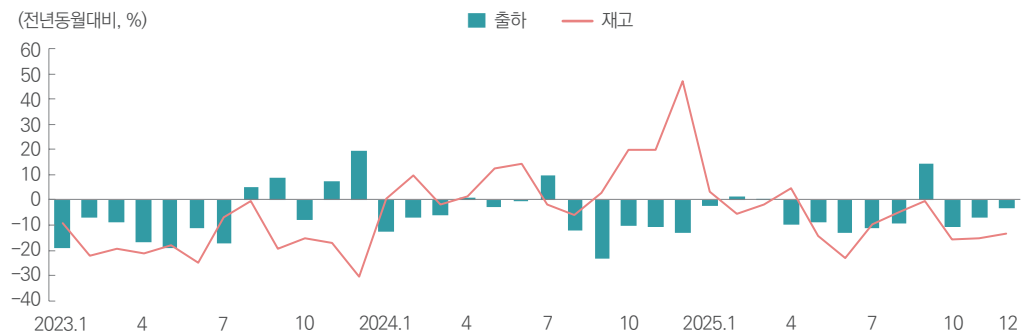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12월 가전 재고는 출하 감소에도 생산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3.7%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5.8 → (11월) -15.3 → (12월) -13.7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0.8 → (11월) -6.9 → (12월) -3.5

| 그림 21 | 가전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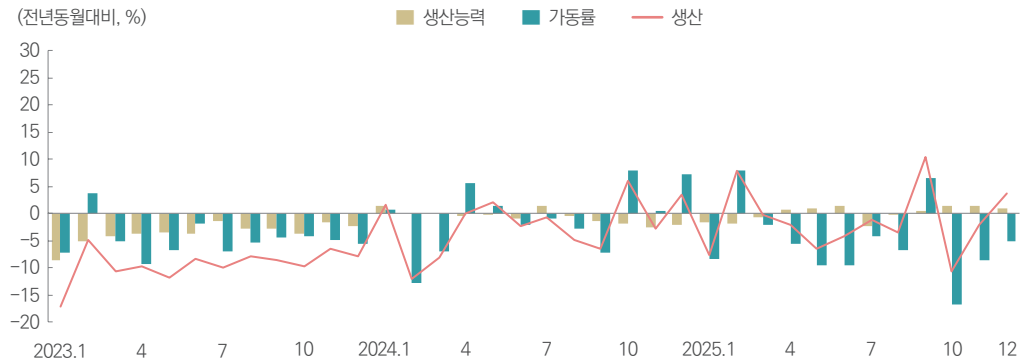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섬유: 전년동월대비 12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 12월 섬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0.7 → (11월) -2.2 → (12월) 3.7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6.8 → (11월) -8.6 → (12월) -5.1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3 → (11월) 1.3 → (12월) 0.9

| 그림 22 | 섬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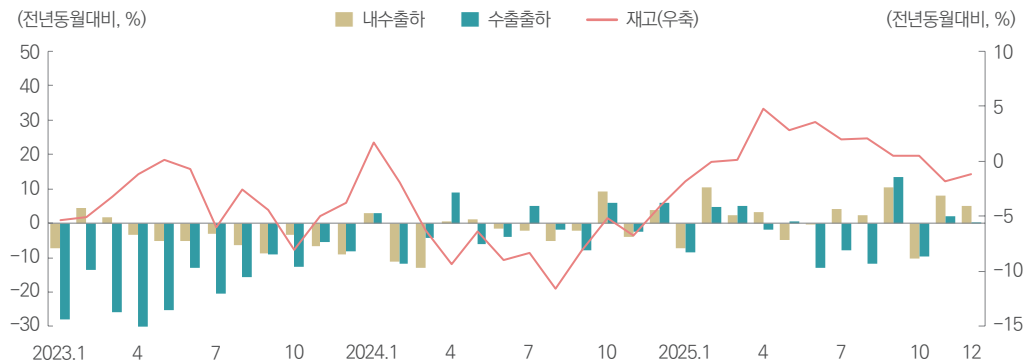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12월 섬유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0.5 → (11월) -1.8 → (12월) -1.2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0.4 → (11월) 7.8 → (12월) 5.0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9.6 → (11월) 2.0 → (12월) 0.2

| 그림 23 | 섬유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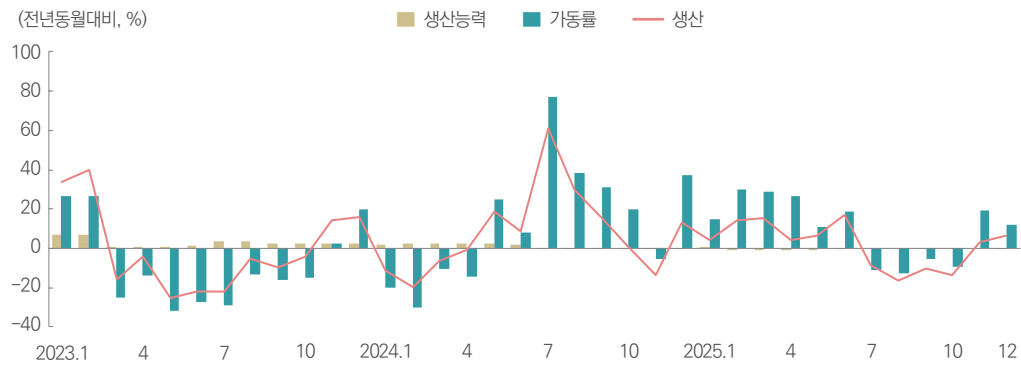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무선통신기기: 전년동월대비 12월 「생산」과 「재고」가 증가

- 12월 무선통신기기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4.0 → (11월) 3.1 → (12월) 6.2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9.0 → (11월) 19.4 → (12월) 12.1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0.0 → (11월) 0.0 → (12월)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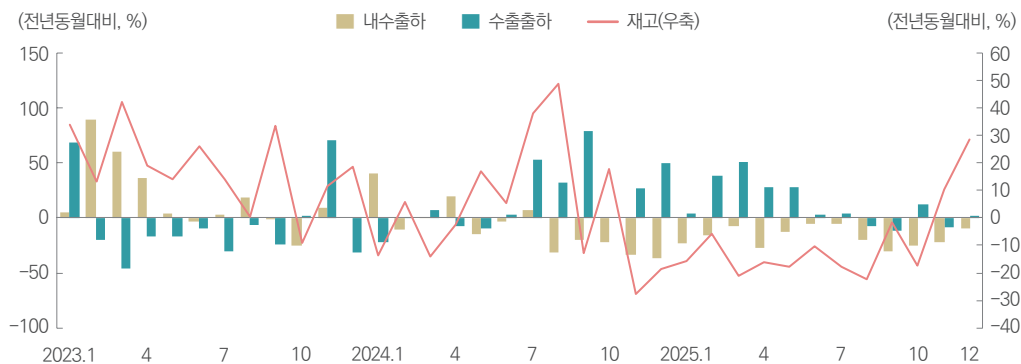
| 그림 24 |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12월 무선통신기기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8.6%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7.5 → (11월) 10.5 → (12월) 28.6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5.2 → (11월) -22.0 → (12월) -9.8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2.4 → (11월) -8.7 → (12월) 2.4

| 그림 25 | 무선통신기기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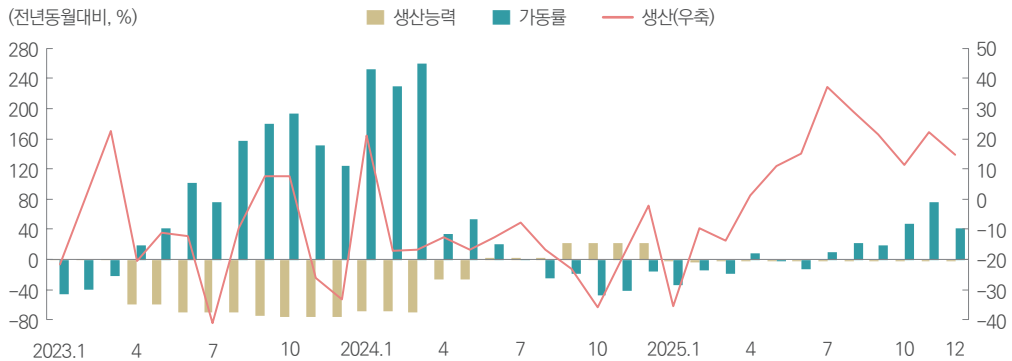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컴퓨터·주변장치: 전년동월대비 12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 12월 컴퓨터·주변장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9%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1.3 → (11월) 22.4 → (12월) 14.9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47.5 → (11월) 76.4 → (12월) 40.9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3 → (11월) -2.3 → (12월)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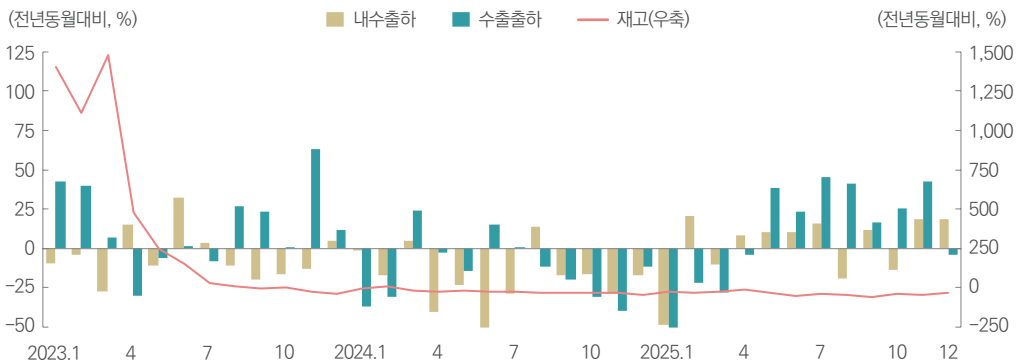
| 그림 26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12월 컴퓨터·주변장치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6.8%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43.0 → (11월) -46.3 → (12월) -36.8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3.3 → (11월) 18.5 → (12월) 18.9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5.2 → (11월) 42.8 → (12월) -3.7

| 그림 27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주: 코로나 시기 재고 소진과 코로나 이후 급격한 재고 증가로 2022년 하반기부터 재고 증감률이 급증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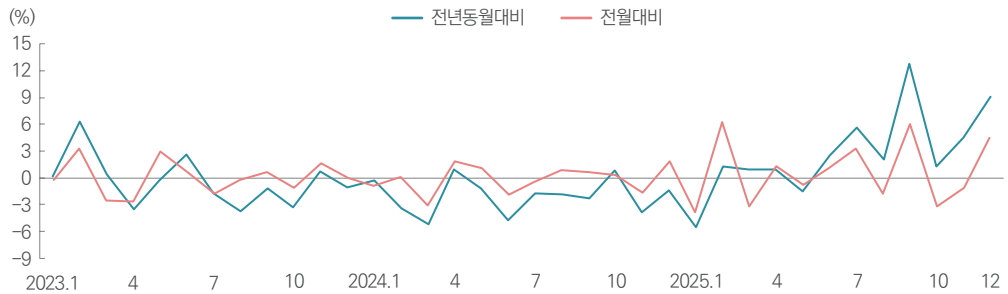
3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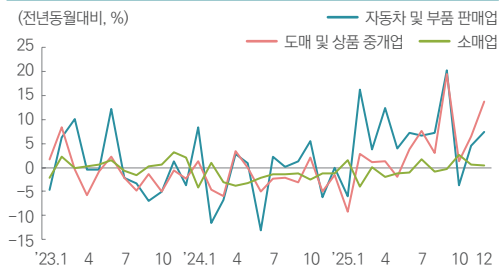
-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도매업(13.8%)과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7.4%)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1% 증가
 - 기타기계장비도매업(43.9%)의 경우 AI투자 확대 관련 기계장비 판매 증가, 기타생활용품도매업(37.6%)의 경우 골드바 등 귀금속 제품 판매 증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7.4%)의 경우 전년 부품 공급난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입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른 판매 증가에 기인
- 전월대비로 4.6% 증가하였는데,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9.9%)의 경우 11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기저로 가축 사료 수요가 증가하였고,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9.1%)의 경우 연말 외식물가 상승에 따른 내식수요 확대에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3 → (11월) 4.5 → (12월) 9.1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0월) -3.3 → (11월) -1.2 → (12월) 4.6
-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는 비내구재(-8.0%)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 화장품(-6.5%), 가구(-4.9%), 음식료품(-2.1%)의 감소폭이 큼

| 그림 28 | 도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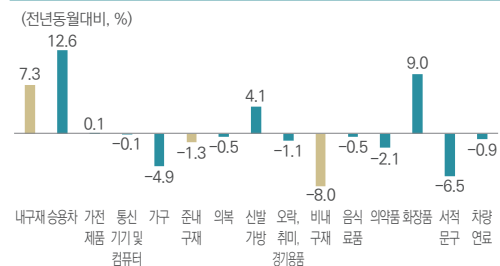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29 | 도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0 |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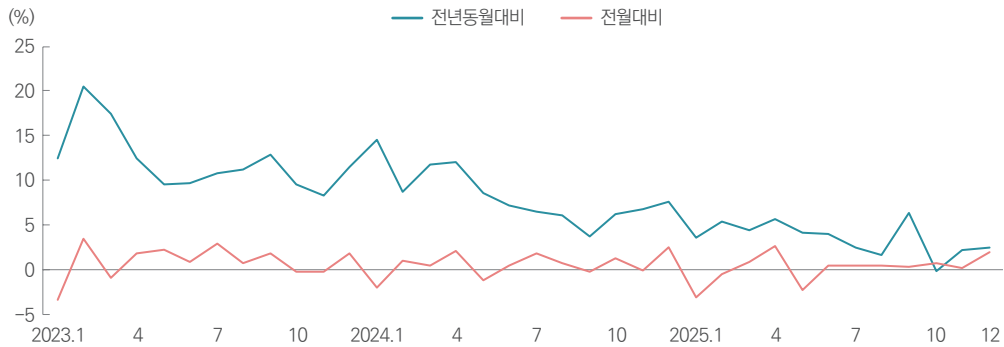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운수 및 창고업: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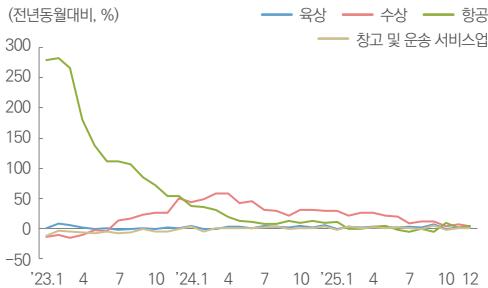
- 운수 및 창고업 생산은 항공운송업(3.7%)과 수상운송업(3.3%)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 항공운송업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 수상운송업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해운 운임과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디플레이터의 감소에 기인
 - ※ 항공 이용객수는 2025년 12월 1,12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 증가
 - ※ 12월 해상 물동량은 1억 3,526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0.24% 감소하였고, 해상운임지수 SCFI와 CCFI 경우 12월 평균 각각 1,528, 1,126으로 전년동월대비 35.6%, 24.4% 하락
- 전월대비로 소화물전문운송업(8.2%), 항공운송업(6.0%)을 중심으로 2.0% 증가
 - 소화물전문운송업의 경우 연말 물류배송이 증가한 데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0.3 → (11월) 2.1 → (12월) 2.4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0월) 0.7 → (11월) 0.1 → (12월) 2.0

| 그림 31 | 운수 및 창고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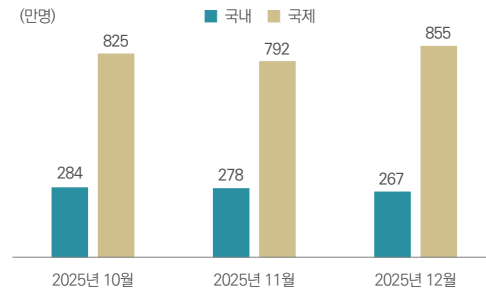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2 | 운수·창고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터,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3 | 항공 이용객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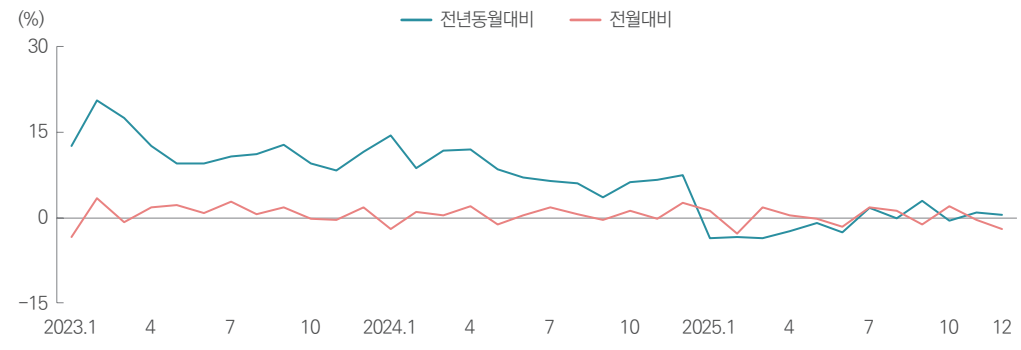


자료: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숙박 및 음식업: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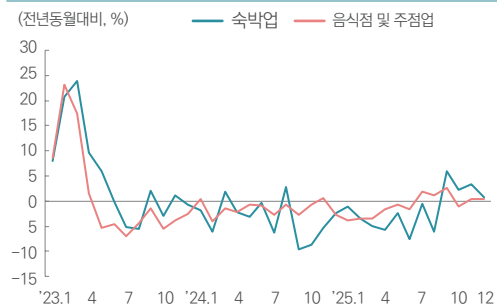
- 숙박 및 음식업 생산은 숙박업(0.7%)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숙박업의 경우 9월 29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저가의 숙소 이용이 늘면서 호텔업(1.0%) 보다는 여관업(4.8%)을 중심으로 증가
 -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한 반면, 음식업은 구내식당업(14.9%)과 기타간이음식업(2.6%)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
- 전월대비로 음식점업(-3.1%)을 중심으로 2.1% 감소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0.6 → (11월) 0.9 → (12월) 0.4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0월) 2.1 → (11월) -0.3 → (12월) -2.1

| 그림 34 | 숙박 및 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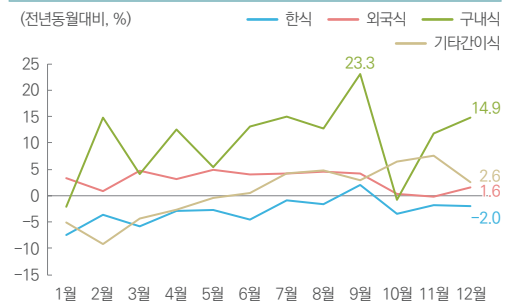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5 | 숙박음식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6 | 음식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 금융 및 보험업: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금융 지원서비스업(34.6%), 연금공제업(26.5%),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24.8%)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금융지원서비스업과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9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 등으로 자금유입이 증가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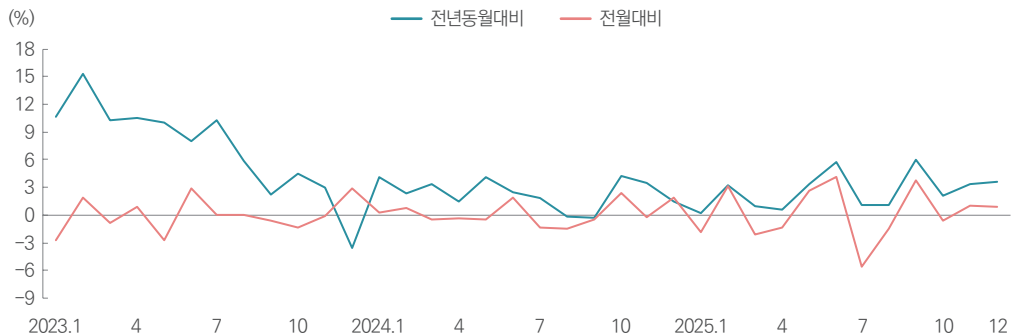
※ 주식거래대금은 12월 54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7.8% 증가³⁾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 및 투자일임 계약고)은 12월 1,937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⁴⁾

- 전월대비로 금융업(1.6%)을 중심으로 0.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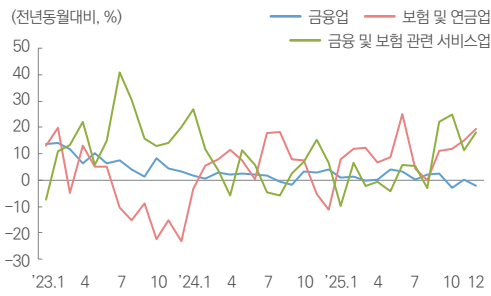
- 금융업의 경우 이자수익과 외환거래수익이 증가한 데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1 → (11월) 3.3 → (12월) 3.6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0월) -0.6 → (11월) 1.1 → (12월) 0.9

| 그림 37 |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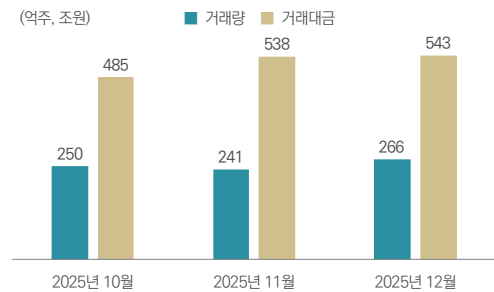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8 | 금융보험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9 | 주식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3) 금융감독원, “2025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보도자료, 2025.11.19.

4) 금융투자협회, <<https://freesis.kofia.or.kr>>, 접속: 2026.2.4.)

■ 정보통신업: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정보통신업 생산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3.7%),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10.0%),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6.7%)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의 경우 대형 게임사의 글로벌 매출 증가와 AI 관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수주가 확대된 데 기인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의 경우 영화 극장 매출액과 관객수가 “주토피아 2”와 “아바타”를 중심으로 증가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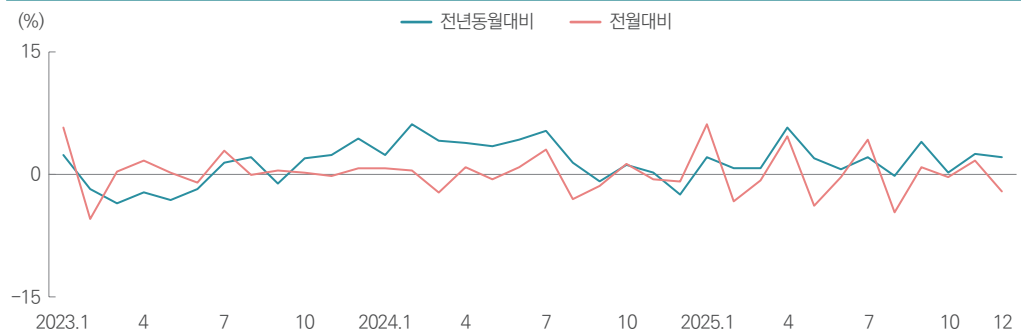
※ 영화 극장 매출액과 관객수는 12월 각각 1,403억원과 1,3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7%, 5.2% 증가⁵⁾

- 전월대비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3.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11.2%)을 중심으로 2.0% 감소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0.2 → (11월) 2.6 → (12월)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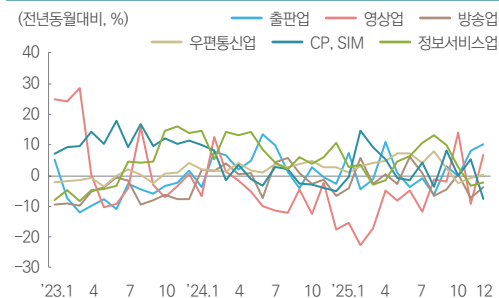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0월) -0.3 → (11월) 1.8 → (12월) -2.0

| 그림 40 | 정보통신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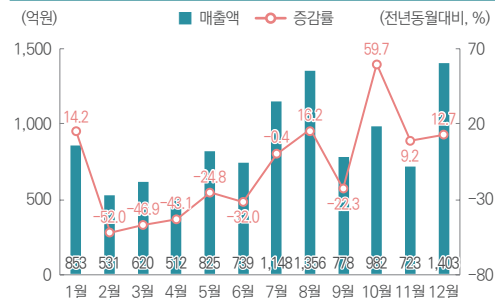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1 | 정보통신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2 | 영화관람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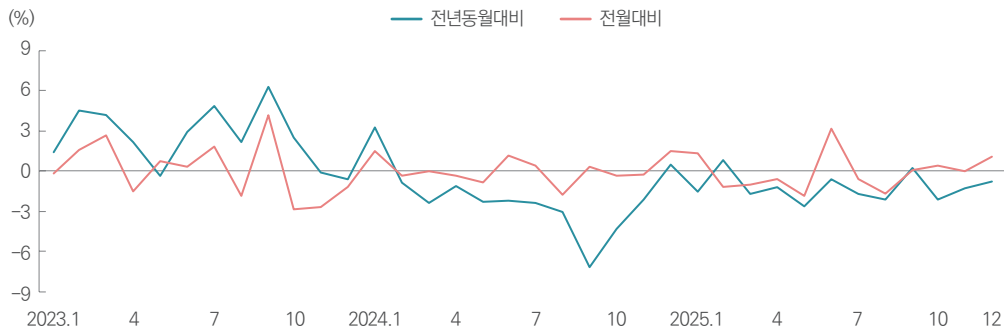
자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5) 영화진흥위원회, “2025년 12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board/selectBoardList.do?boardNumber=2>, 접속: 2026.2.4.>

■ 부동산업: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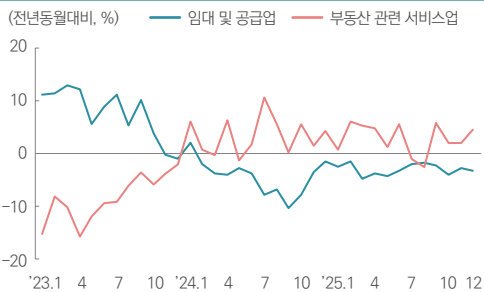
- 부동산업 생산은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12.3%)은 증가한 반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8.2%)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기성액이 감소한 데 기인
 - ※ 건설기성액⁶⁾의 경우 12월 기준 건설과 토목이 각각 11.1조원, 5.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 2.3% 감소
- 전월대비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3.2%)을 중심으로 1.1% 증가
 - 전월세 거래량과 거래금액 증가와 재개발 및 재건축 수요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
 - ※ 주택전월세거래량은 12월 18.7천호로 전월대비 5.7% 증가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1 → (11월) -1.3 → (12월) -0.8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0월) 0.4 → (11월) 0.0 → (12월) 1.1

| 그림 43 | 부동산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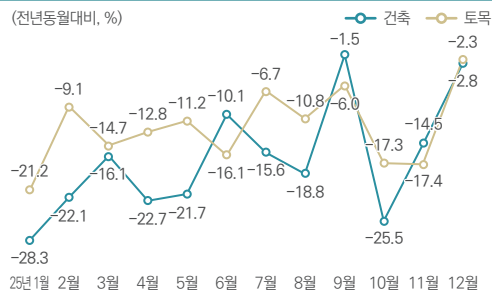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4 | 부동산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5 | 건설기성액 증감률 추이



주: 경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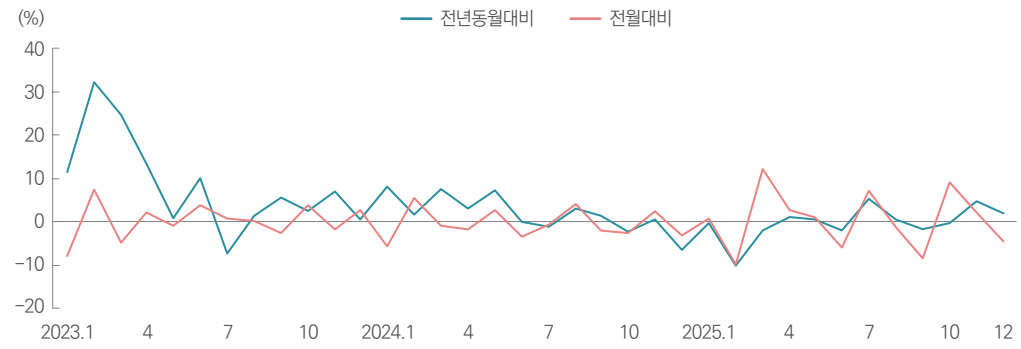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6) 건설기성액은 건설업체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시공하여 완료한 공사 금액을 의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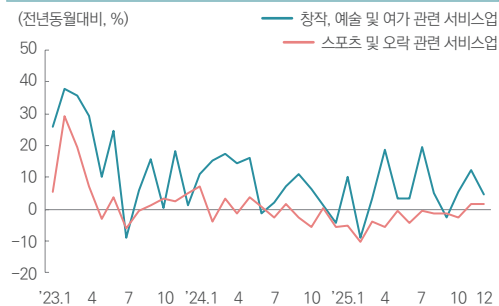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은 스포츠서비스업(5.1%)과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6%)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12월 공연티켓 판매액이 2,30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한 데 기인
- 전월대비로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7%)과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7.4%)을 중심으로 4.4% 감소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0.3 → (11월) 4.7 → (12월) 2.0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0월) 9.2 → (11월) 2.2 → (12월) -4.4

| 그림 46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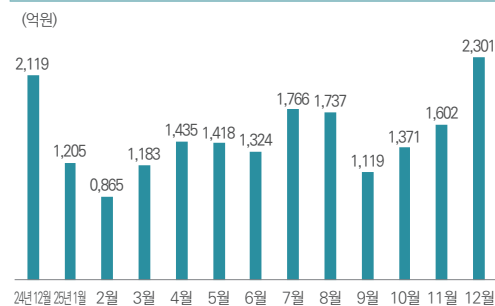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7 | 예술스포츠여가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8 | 공연티켓 판매액 추이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

II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 2026년 1월 중 주요 13대 산업⁷⁾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전년동월대비: 13대 산업의 수출은 525.0억달러로 화학(-1.5%), 조선(-0.4%) 등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102.7%), 무선통신기기(66.9%), 컴퓨터·주변장치(53.2%) 등을 중심으로 37.1% 증가
 - 반도체 수출은 2025년 4월부터 연속하여 해당 월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고,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주변장치 또한 강한 수출 증가세를 견인
 - 수출액(억달러): ('25.10월) 472.5 → (11월) 476.0 → (12월) 550.0 → ('26.1월) 525.0
 -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5.2 → (11월) 7.3 → (12월) 13.7 → ('26.1월) 37.1
- 전월대비: 이차전지(-23.2%), 조선(-18.6%), 컴퓨터·주변장치(-17.1%), 바이오헬스(-13.2) 등 부문별 수출이 대부분 전월대비 감소하며 13대 산업 수출은 전월대비 4.6% 감소
 - 증감률(전월대비, %): ('25.10월) -7.8 → (11월) 0.8 → (12월) 15.5 → ('26.1월) -4.6

| 표 1 |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1월	2025			2026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대비
총수출(수출액)	575.0	562.9	613.6	491.8	595.2	607.7	695.4	658.6	-5.3
총수출	4.6	1.3	6.6	-10.1	3.5	8.0	13.3	33.9	
13대 산업(수출액)	448.9	443.8	483.6	383.0	472.5	476.0	550.0	525.0	-4.6
13대 산업	4.8	2.5	5.9	-10.0	5.2	7.3	13.7	37.1	
반도체	40.3	30.8	31.5	8.1	25.2	38.6	43.2	102.7	-1.1
자동차	5.5	-12.4	-2.9	-19.2	-12.5	7.8	-1.7	17.5	-1.1
화학	10.2	-5.7	1.8	-11.1	-21.3	-12.7	-8.6	-1.5	-0.4
일반기계	-8.1	-19.1	-7.4	-21.4	-16.0	-4.2	-2.1	8.6	-12.3
석유	-34.5	-18.6	-11.6	-28.1	13.3	-10.0	6.1	8.5	-11.0
철강	8.6	1.0	2.9	-5.0	-21.6	-16.0	-10.7	0.3	6.4
조선	-28.5	70.8	-15.6	-1.3	131.0	-26.4	-2.0	-0.4	-18.6
컴퓨터주변장치	-5.0	13.0	34.3	-5.1	-4.8	0.0	18.9	53.2	-17.1
무선통신기기	19.7	-3.5	16.1	-9.4	-10.9	1.2	24.7	66.9	20.2
섬유	2.0	-4.1	-4.5	-16.1	-17.0	-11.1	-0.9	5.9	-13.0
가전	5.0	-13.9	3.7	-17.2	-19.7	-2.4	-1.6	0.2	-7.5
이차전지	-8.9	-26.4	-13.6	-12.6	-14.1	2.3	-12.9	5.6	-23.2
바이오헬스	18.5	19.2	-2.5	-1.2	-6.6	0.1	22.3	18.4	-13.2

주: *표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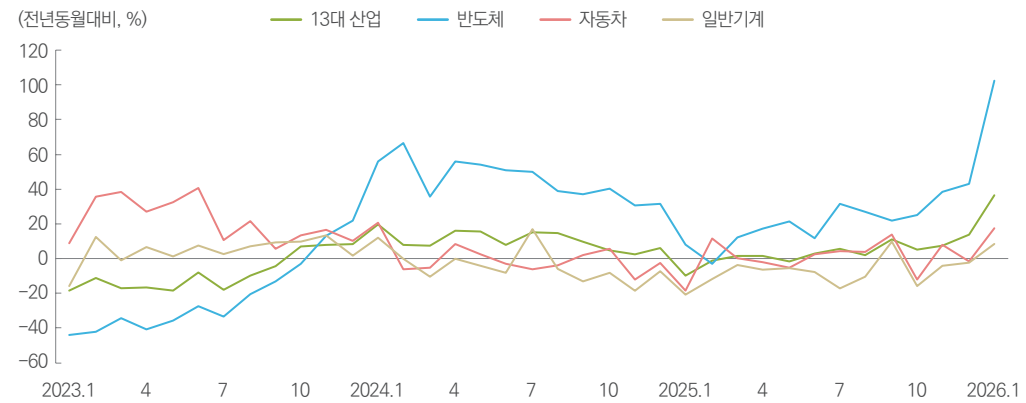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7) 생산과 수출의 분류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통계청의 업종별 산업분류(KSIC)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품목별 산업분류기준(MTI)를 매칭하여 분류

8) 자동차(수송기계, 자동차부품을 포함),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주변장치 및 이차전지, 바이오헬스를 포함

- 반도체 수출은 AI와 서버용 고부가가치메모리(HBM, DDR5 등)의 높은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2025년 4월 이후 연속하여 해당 월 최고 실적 기록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1월) 101.3(8.1%) → ('26.1월) 205.4(102.7%)
 - DRAM 고정가격(DDR4 8Gb, 달러): ('25.1Q) 1.4 → (2Q) 2.1 → (3Q) 5.3 → (4Q) 8.1 → ('26.1월) 11.5
- 자동차 수출은 전년도 설 연휴로 인한 적은 조업일수에 따른 생산 차질의 기저효과와 친환경자동차와 내연기관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며 수출이 증가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1월) 65.6(-19.2%) → ('26.1월) 77.0(17.5%)
 - 완성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1월) 49.9(-19.7%) → ('26.1월) 60.7(21.7%)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1월) 15.7(-17.4%) → ('26.1월) 16.3(4.0%)
- 일반기계 수출은 고금리,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 설비투자가 감소세에 있으나,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로 수출이 증가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1월) 34.2(-21.4%) → ('26.1월) 37.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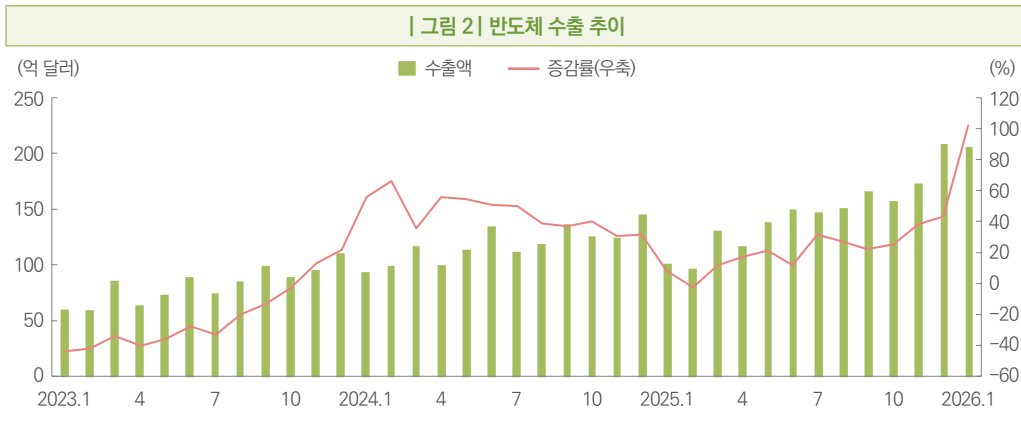
| 그림 1 | 13대 산업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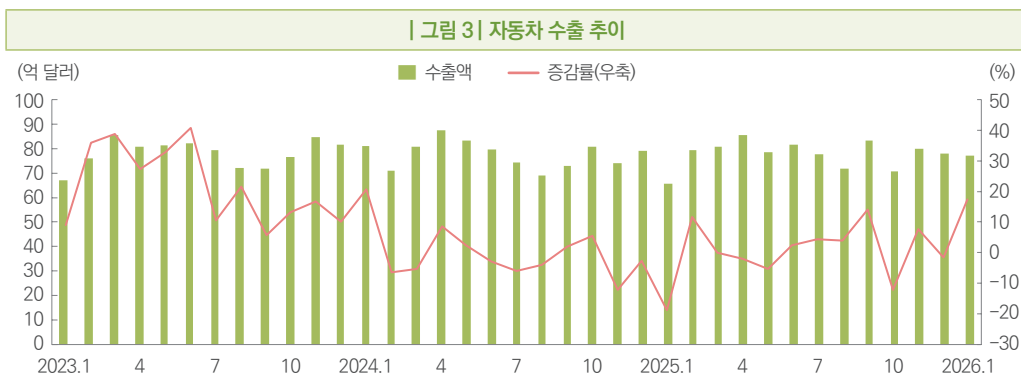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2.7% 증가하여 205.4억달러를 기록
 - 반도체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38.6 → (12월) 43.2 → ('26.1월) 102.7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25.11월) 172.6 → (12월) 207.7 → ('26.1월) 205.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하여 77.0억달러를 기록
 - 자동차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7.8 → (12월) -1.7 → ('26.1월) 17.5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 ('25.11월) 79.8 → (12월) 77.8 → ('26.1월) 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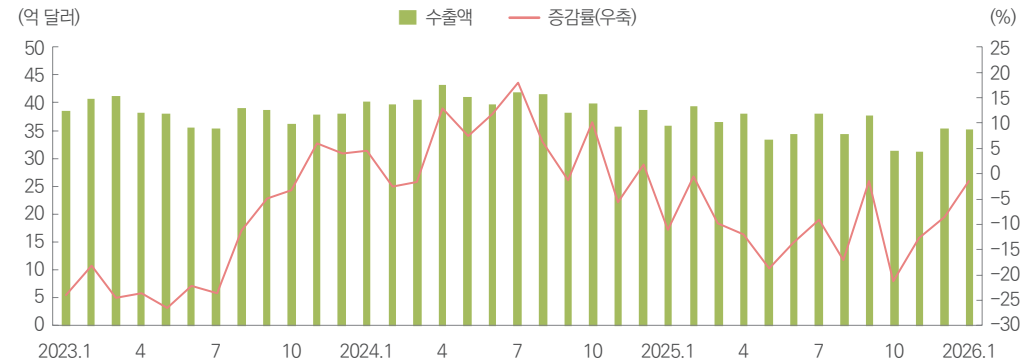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화학: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하여 35.2억달러를 기록
 - 화학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12.7 → (12월) -8.6 → ('26.1월) -1.5
 - 화학 수출액(억달러): ('25.11월) 31.1 → (12월) 35.4 → ('26.1월) 35.2

| 그림 4 | 화학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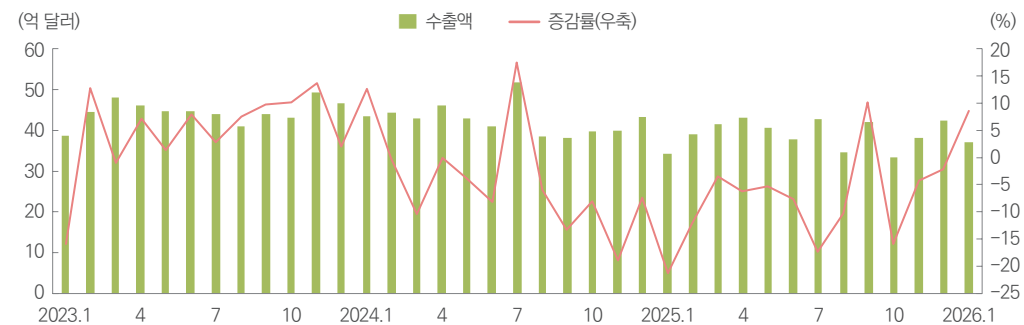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일반기계: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6% 증가하여 37.1억달러를 기록
 - 일반기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4.2 → (12월) -2.1 → ('26.1월) 8.6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 ('25.11월) 38.1 → (12월) 42.3 → ('26.1월) 37.1

| 그림 5 | 일반기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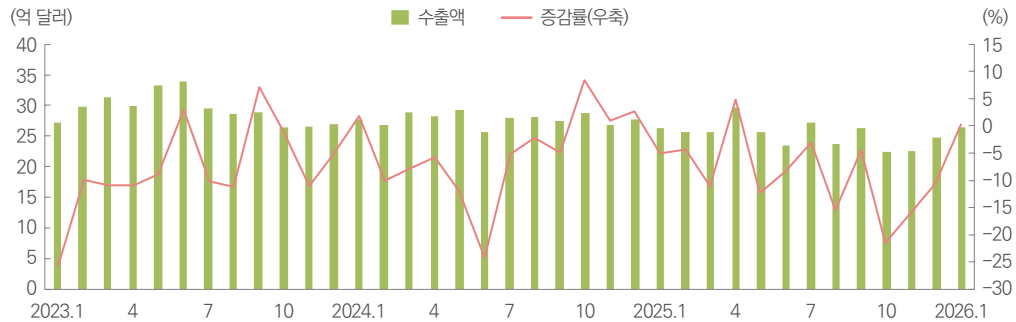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철강: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하여 26.3억달러를 기록
 - 철강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16.0 → (12월) -10.7 → ('26.1월) 0.3
 - 철강 수출액(억달러): ('25.11월) 22.5 → (12월) 24.8 → ('26.1월) 26.3

| 그림 6 | 철강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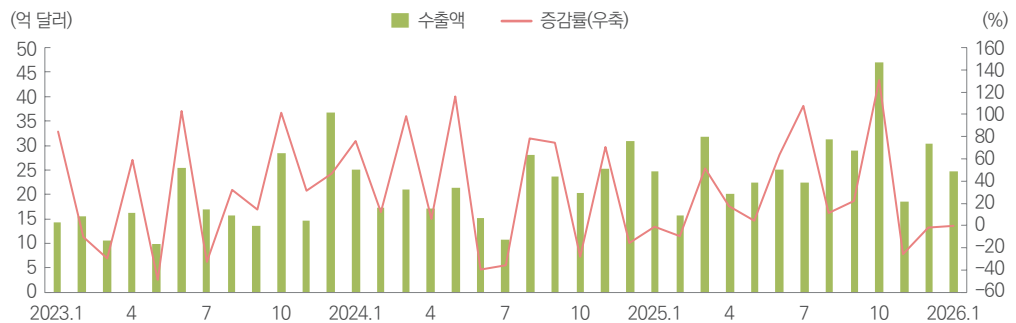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조선: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하여 24.7억달러를 기록
 - 조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26.4 → (12월) -2.0 → ('26.1월) -0.4
 - 조선 수출액(억달러): ('25.11월) 18.5 → (12월) 30.3 → ('26.1월) 24.7

| 그림 7 | 조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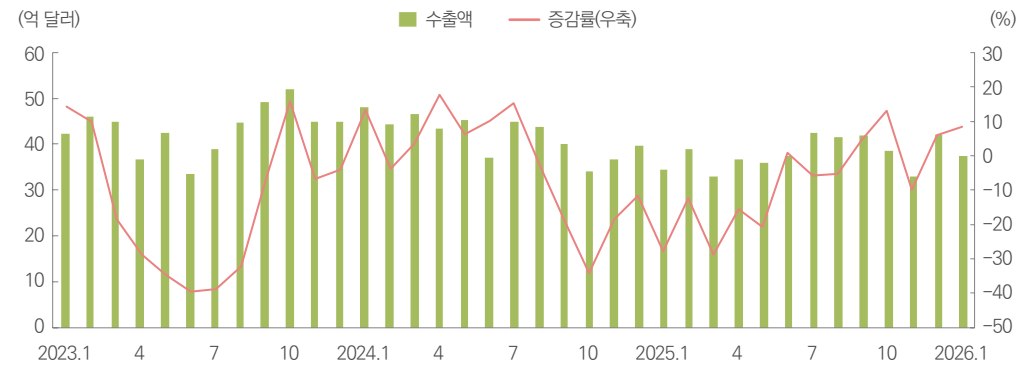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석유: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5% 증가하여 37.4억달러를 기록
 - 석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10.0 → (12월) 6.1 → ('26.1월) 8.5
 - 석유 수출액(억달러): ('25.11월) 32.9 → (12월) 42.0 → ('26.1월) 37.4

| 그림 8 | 석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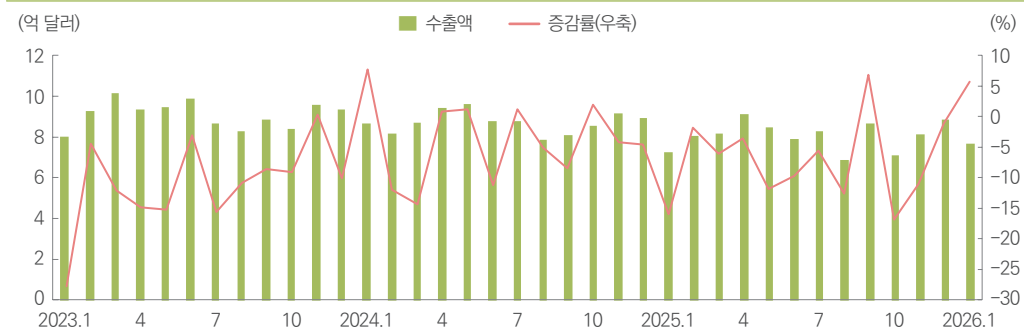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섬유: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하여 7.7억달러를 기록
 - 섬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11.1 → (12월) -0.9 → ('26.1월) 5.9
 - 섬유 수출액(억달러): ('25.11월) 8.1 → (12월) 8.8 → ('26.1월)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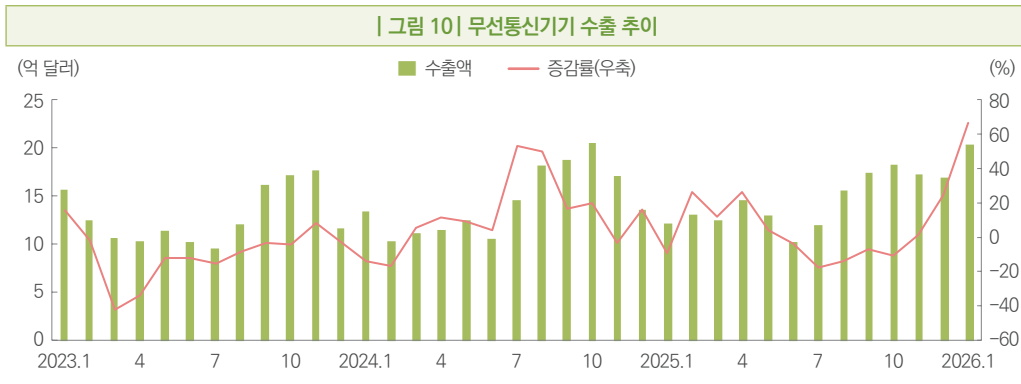
| 그림 9 | 섬유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무선통신기기: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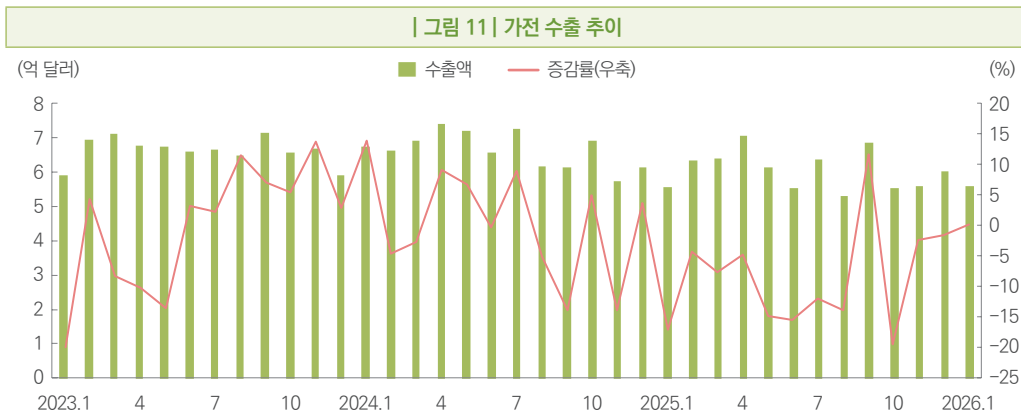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6.9% 증가하여 20.3억달러를 기록
 -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1.2 → (12월) 24.7 → ('26.1월) 66.9
 -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억달러): ('25.11월) 17.2 → (12월) 16.9 → ('26.1월) 20.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가전: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여 5.6억달러를 기록
 - 가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2.4 → (12월) -1.6 → ('26.1월) 0.2
 - 가전 수출액(억달러): ('25.11월) 6.9 → (12월) 5.4 → ('26.1월)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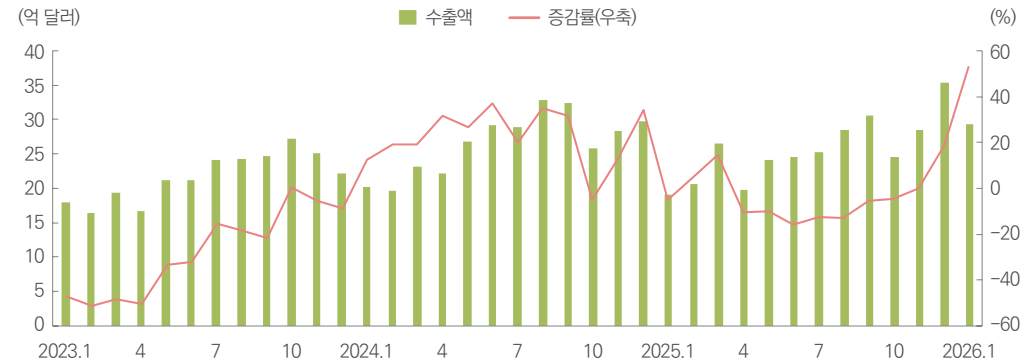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컴퓨터·주변장치: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3.2% 증가하여 29.3억달러를 기록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0.0 → (12월) 18.9 → ('26.1월) 53.2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액(억달러): ('25.11월) 28.4 → (12월) 35.4 → ('26.1월) 29.3

| 그림 12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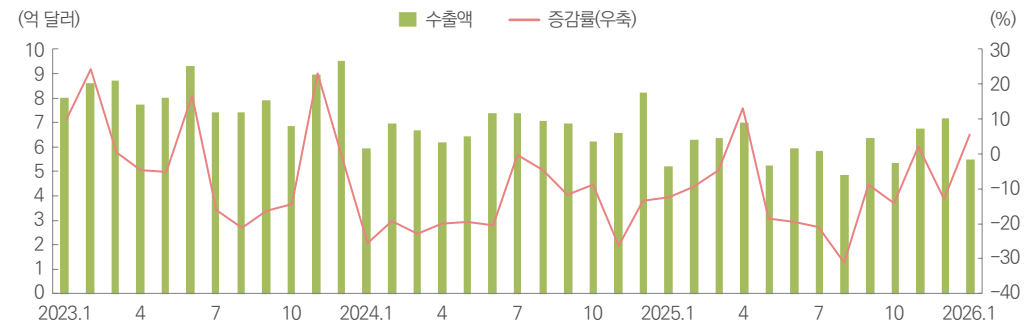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이차전지: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하여 5.5억달러를 기록
 - 이차전지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2.3 → (12월) -12.9 → ('26.1월) 5.6
 - 이차전지 수출액(억달러): ('25.11월) 6.7 → (12월) 7.2 → ('26.1월)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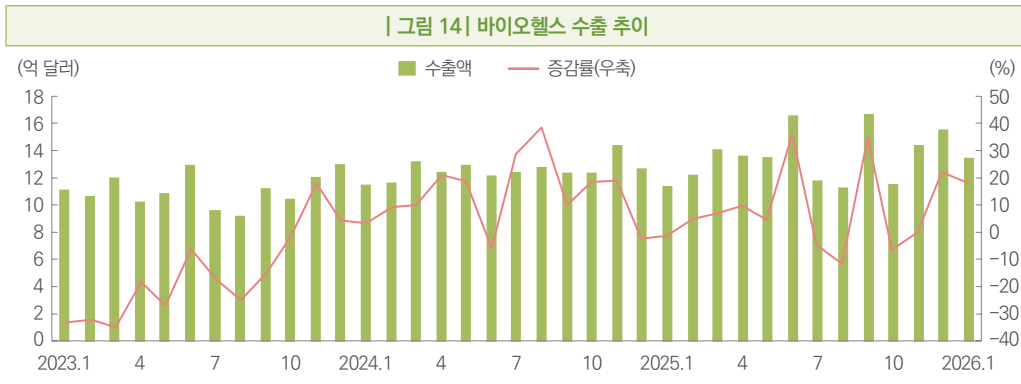
| 그림 13 | 이차전지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바이오헬스: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4% 증가하여 13.5억달러를 기록
 - 바이오헬스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0.1 → (12월) 22.3 → ('26.1월) 18.4
 - 바이오헬스 수출액(억달러): ('25.11월) 14.4 → (12월) 15.5 → ('26.1월) 13.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주요 유망소비재⁹⁾: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0% 증가, 전월대비 9.0% 감소하여 38.8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9.3 → (12월) 18.1 → ('26.1월) 23.0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액(억 달러): ('25.11월) 41.6 → (12월) 42.6 → ('26.1월) 38.8

| 표 2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구분	2024			2025				2026	
	10월	11월	12월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대비
유망소비재(수출액)	37.8	38.1	36.1	31.5	37.4	41.6	42.6	38.8	-9.0
유망소비재	18.9	11.4	9.6	-3.8	-0.8	9.3	18.1	23.0	
농수산식품	10.3	0.8	14.3	-2.6	-3.8	3.2	7.6	19.3	-11.1
화장품	35.8	17.7	25.5	-4.8	-11.1	4.2	21.9	36.3	-3.7
패션의류	-1.8	-5.2	-8.0	-23.6	-8.2	0.9	7.9	15.1	-24.6
생활유아용품	11.9	1.4	9.5	-12.4	22.8	39.4	24.4	19.0	-18.2
의약품	25.4	35.6	-4.9	9.6	-3.4	-0.1	25.4	18.9	0.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9)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5대 유망소비재를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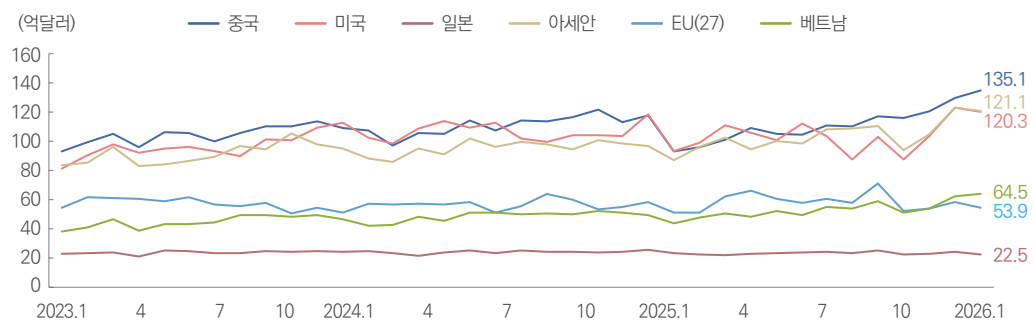
2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 1월 10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은 중국,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

-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의 강한 수요와 함께 철강, 조선, 석유, 일반기계 등에서도 수출이 증가하며 역대 1월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
 - 대중국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¹⁰⁾: (반도체) 71.9%, (철강) 60.7%, (조선) 58.0%, (석유) 33.2%, (일반기계) 12.9%
- 대미국 수출은 미국의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일반기계, 자동차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 반도체의 강한 수요로 수출이 증가하며 역대 1월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
 - 대미국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무선통신) 263.9%, (반도체) 169.0%, (일반기계) -34.2%, (자동차) -12.6%

| 그림 15 |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3 |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가공단계별	2024			2025				2025	
	10월	11월	12월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대비
중국	10.7	-0.5	8.4	-13.9	-5.1	6.7	10.1	46.7	4.2
미국	3.3	-5.2	5.4	-9.5	-16.2	-0.1	3.7	29.5	-2.5
일본	-2.8	-2.0	6.3	-7.0	-8.4	-7.4	-7.0	-4.7	-8.4
아세안	-4.5	0.2	2.2	-1.9	-6.9	6.4	27.6	40.7	-1.7
EU(27)	5.7	0.8	15.2	-11.6	-2.2	-1.9	0.5	6.9	-7.6
중동	-0.7	17.5	-0.7	-20.0	-1.4	33.2	25.7	18.0	-28.2
중남미	21.2	19.7	15.8	-6.8	98.7	-7.0	4.2	19.2	-1.3
CIS	4.6	9.5	9.3	-11.6	34.2	25.3	-2.8	-1.6	-24.1
베트남	8.3	4.7	6.5	4.0	-2.5	5.1	27.0	48.0	3.0
인도	-1.3	-4.7	6.0	-4.8	-2.3	1.7	2.1	15.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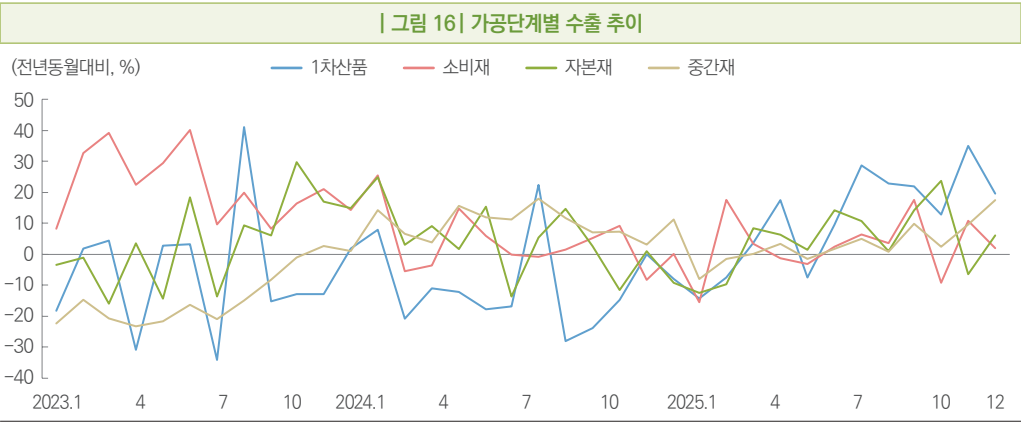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10) 해당 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통계

3 가공단계별 수출

■ 12월 가공단계별 「수출」 중 1차산품이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증가

- 1차산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9.8%, 전월대비 12.4% 증가
 - 1차산품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12.8 → (11월) 35.3 → (12월) 19.8
- 소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전월대비 3.5% 감소
 - 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9.5 → (11월) 10.8 → (12월) 1.9
- 자본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1%, 전월대비 24.0% 증가
 - 자본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4.0 → (11월) -6.7 → (12월) 6.1
- 중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8%, 전월대비 16.9% 증가
 - 중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6 → (11월) 9.9 → (12월) 17.8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4 | 가공단계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1차산품	-14.8	-0.1	-8.1	12.8	35.3	19.8	12.4
소비재	9.1	-8.5	0.0	-9.5	10.8	1.9	-3.5
자본재	-11.9	0.9	-9.4	24.0	-6.7	6.1	24.0
중간재	7.6	3.3	11.5	2.6	9.9	17.8	16.9

자료: 한국무역협회



에너지·원자재

1

에너지

가. 국제 가격

■ 2026년 1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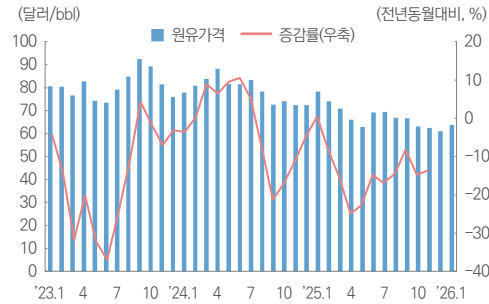
- 원유 가격은 63.7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6% 하락, 전월대비 4.6% 상승
 - 원유가격(달러/bbl): ('25.11월) 62.3 → (12월) 60.9 → ('26.1월) 63.7
 - 원유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13.8 → (12월) -15.8 → ('26.1월) -18.6
- 유가는 미국 등 비OPEC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 증가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세계 석유생산량은 2025년 12월 1억 740만b/d¹¹⁾로 전년동월대비 3.2%(327만b/d)로 증가¹²⁾
 -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25년 11월 13.782백만b/d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¹³⁾
-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세계 원유 수요 전망, 미국과 카자흐스탄의 원유 생산 차질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
 - IEA는 관세불확실성에 따른 전년도 수요 위축 효과와 최근 낮은 유가로 2026년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Reuters, 1.21).
 - 미국의 겨울철 한파와 카자흐스탄 Tengiz 유전의 화재로 원유 생산량이 예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Reuters, 1.26, 1.27).

11) barrels of oil per day의 약자로, 일일 석유 생산, 소비, 정제량 등을 표기할 때 사용. 참고로 1배럴은 158.97리터이며, bopd, bpd라고도 표기함.

12) IEA, Oil Market Report, Jan. 2025; IEA, Oil Market Report, Jan. 2026

13) EIA, <<https://www.eia.gov/dnav/pet/hist/leafhandler.ashx?n=pets&s=mcrfpus2&f=m>>, 접속: 2026.2.9.)

| 그림 1 | 원유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 표 1 | 원유 가격 동향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1월	11월	12월	1월		
Brent	79.2	63.6	62.7	66.8	-15.7	6.5
Dubai	80.1	63.8	62.0	63.9	-20.3	3.1
WTI	75.1	59.6	57.9	60.3	-19.8	4.0
평균 ¹⁾	78.2	62.3	60.9	63.7	-18.6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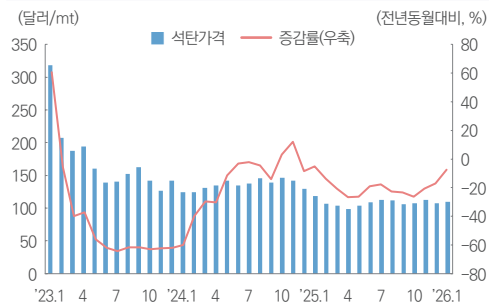
주: ¹⁾Brent, Dubai, WTI의 평균

자료: 세계은행

■ 2026년 1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석탄 가격은 톤당 109.8달러(호주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7.4% 하락, 전월대비 2.0% 상승
 - 석탄 가격(달러/mt): ('25.11월) 112.6 → (12월) 107.7 → ('26.1월) 109.8
 - 석탄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20.8 → (12월) -17.1 → ('26.1월) -7.4
- 석탄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 수요 패턴 변화로 석탄 수요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자국 생산 확대와 재고 누적으로 해외 수입이 감소한 데 기인¹⁴⁾
- 석탄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한 것은 중국의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2026년에 100개 이상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것으로 예정되는 데 기인¹⁵⁾

| 그림 2 | 석탄 가격 추이



주: 호주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2 | 석탄 가격 동향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1월	11월	12월	1월		
호주	118.6	112.6	107.7	109.8	-7.4	2.0
남아프리카	103.3	91.6	90.9	90.6	-12.3	-0.4
평균	110.9	102.1	99.3	100.2	-9.7	0.9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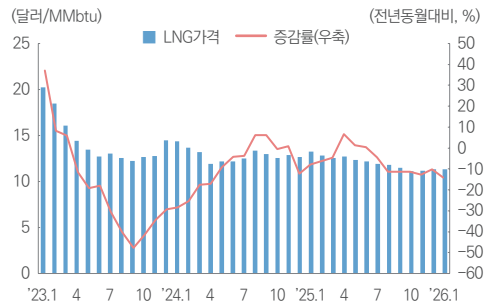
14) Bloomberg, "China's coal imports post biggest annual drop," 2026.1.13.

15) Trading Economics, <<https://ko.tradingeconomics.com/commodity/coal/news/521724>, 접속: 2026.2.9.>

■ 2026년 1월 중 「천연가스」 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천연가스가격지수는 한파에 따른 난방 수요 증가로 미국산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
 - 천연가스가격지수(2010=100): ('25.11월) 103.1 → (12월) 104.4 → ('26.1월) 155.6
 - 천연가스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11월) -7.2 → (12월) -18.7 → ('26.1월) 17.1
-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MMBtu당 11.3달러(일본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14.4%, 전월대비 0.3% 하락
 - 미국의 LNG 수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¹⁶⁾
 - 액화천연가스(달러/MMBtu): ('25.11월) -13.0 → (12월) -10.4 → ('26.1월) -14.4
 - 액화천연가스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11.2 → (12월) 11.3 → ('26.1월) 11.3

| 그림 3 | LNG 가격 추이



주: 일본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3 | LNG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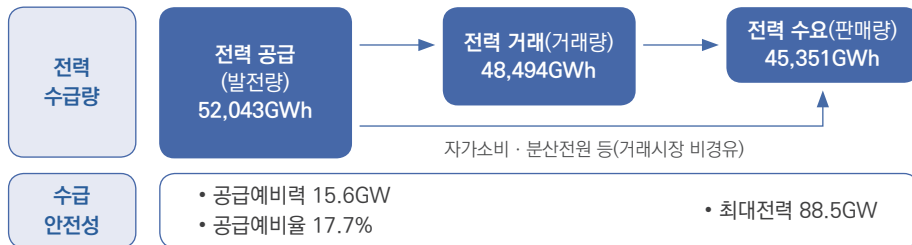
(단위: 달러/MMBtu, %)

구분	2025			2026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1월	11월	12월	1월		
미국 (Henry Hub)	4.1	3.8	4.3	7.6	85.0	78.4
유럽 (TTF)	14.7	10.4	9.5	11.8	-19.8	24.0
일본 (JKM)	13.2	11.2	11.3	11.3	-14.4	-0.3

자료: 세계은행

나. 전력

| 그림 4 | 전력 공급 및 시장 거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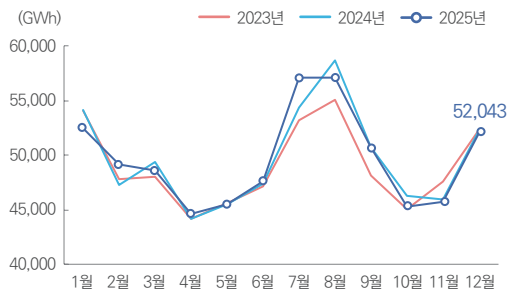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6) 미국의 LNG 수출량은 2025년 0.23억톤 증가한 1.11억톤이었으며 이는 전세계 수출량의 25%를 차지.

■ 2025년 12월 전력 수급은 「발전량», 「거래량», 「판매량」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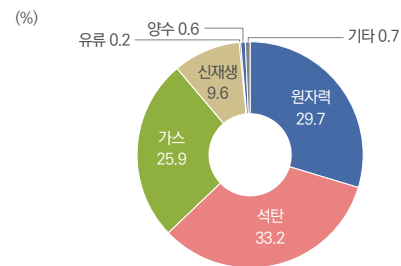
- 발전량은 52,043GWh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발전량(GWh): ('25.10월) 45,236 → (11월) 45,674 → (12월) 52,043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10월) -2.0 → (11월) -0.3 → (12월) -0.3
 - 1~12월 누적 발전량은 595,523GWh로 전년 수준을 유지
 -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전원믹스)은 석탄 33.2%, 원자력 29.7%, 가스 25.9%, 신재생 9.6% 순

| 그림 5 | 월별 발전량(전력공급)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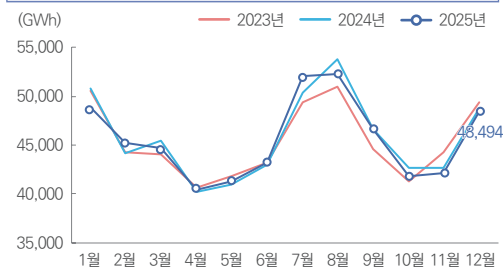
| 그림 6 |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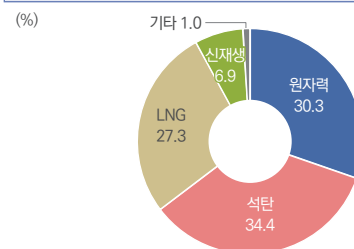
- 전력거래량¹⁷⁾은 48,494GWh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 전력거래량(GWh): ('25.10월) 41,740 → (11월) 42,097 → (12월) 48,494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10월) -2.1 → (11월) -1.3 → (12월) -0.5
 - 1~12월 누적 판매량 547,119GWh로 전년 수준을 하회
 - 연료원별 비중은 석탄 34.4%, 원자력 30.3%, LNG 27.3%, 신재생 6.9% 순

| 그림 7 | 월별 전력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8 | 연료원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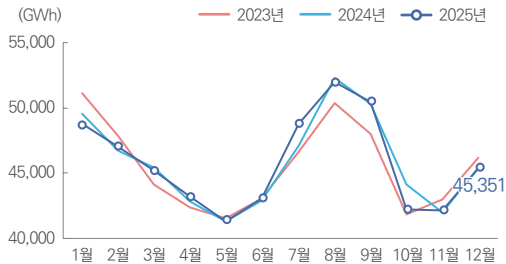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7)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거래량(PPA거래량 불포함)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전력판매량은 45,351GWh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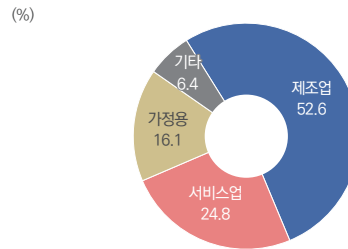
- 전력판매량(GWh): ('25.10월) 42,125 → (11월) 42,076 → (12월) 45,351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10월) -4.5 → (11월) 0.3 → (12월) -0.1
- 1~12월 누적 전력판매량은 42,125GWh로 전년동기간대비 0.1% 증가
-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은 제조업 52.6%, 서비스업 24.8%, 가정용 16.1% 순

| 그림 9 | 월별 전력 판매량(전력수요)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그림 10 |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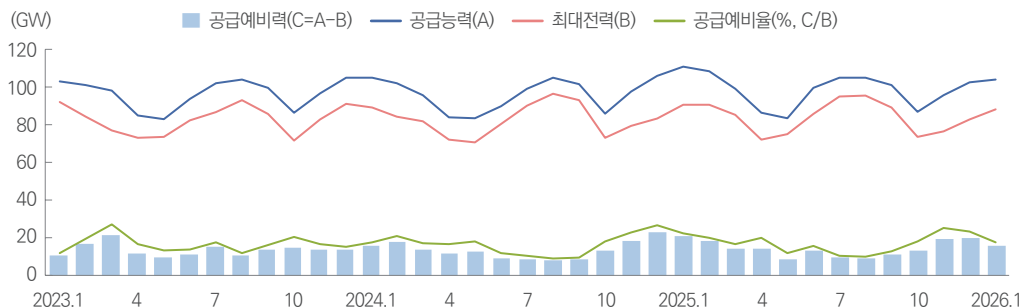


주: 기타는 공공용, 농수산업, 광업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2026년 1월 수급 안정성은 「최대전력»,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등 주요 지표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최대전력은 88.5GW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 최대전력(GW): ('25.11월) 76.2 → (12월) 82.8 → ('26.1월) 88.5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11월) -3.7 → (12월) -0.6 → ('26.1월) -2.4
- 공급예비력은 15.6GW, 전력공급예비율은 17.7%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¹⁸⁾
 - 공급예비력(GW): ('25.11월) 19.5 → (12월) 19.9 → ('26.1월) 15.6
 - 공급예비율(%): ('25.11월) 25.6 → (12월) 24.0 → ('26.1월)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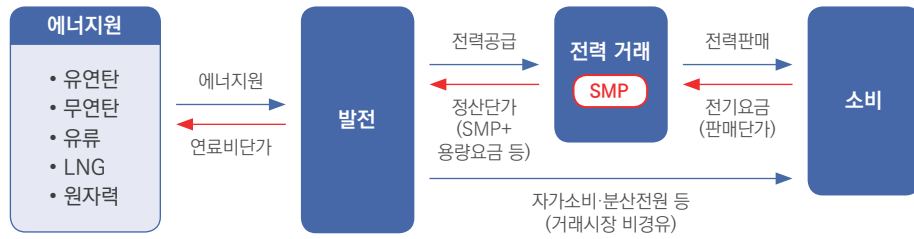
| 그림 11 | 전력 수급 안정성 지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8)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 그림 12 | 전력시장 주요 가격 지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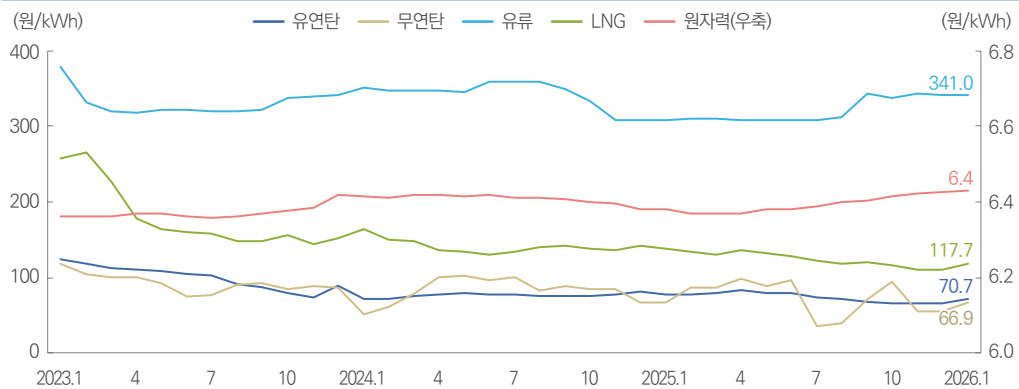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6년 1월 「연료비단가」는 원자력, 유류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하락세

- 2026년 1월 발전사가 연료 공급사로부터 구입한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는 전년동월대비 원자력, 유연탄, 유류는 하락한 반면, 무연탄은 상승하였으며 LNG는 전년 수준을 유지함
 - 연료비단가(원/kWh): (원자력)6.4, (유연탄)70.7, (무연탄)66.9, (유류)341.0, (LNG)117.7
 - 연료비단가(전년동월대비, %): (원자력)0.8, (유연탄)-7.4, (무연탄)-0.8, (유류)10.8, (LNG)-15.1

| 그림 13 |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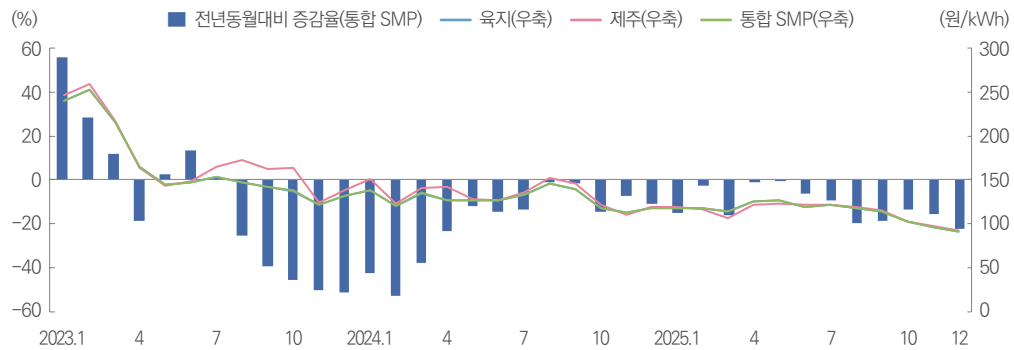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2025년 12월 「전력도매가격(SMP)」 및 「정산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하락, 「판매 단가」는 상승을 기록함¹⁹⁾

- 2025년 12월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 시장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kWh당 90.44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4% 하락
 - 통합 SMP(원/kWh): ('25.10월) 101.53 → (11월) 94.81 → (12월) 90.44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10월) -13.4 → (11월) -15.5 → (12월)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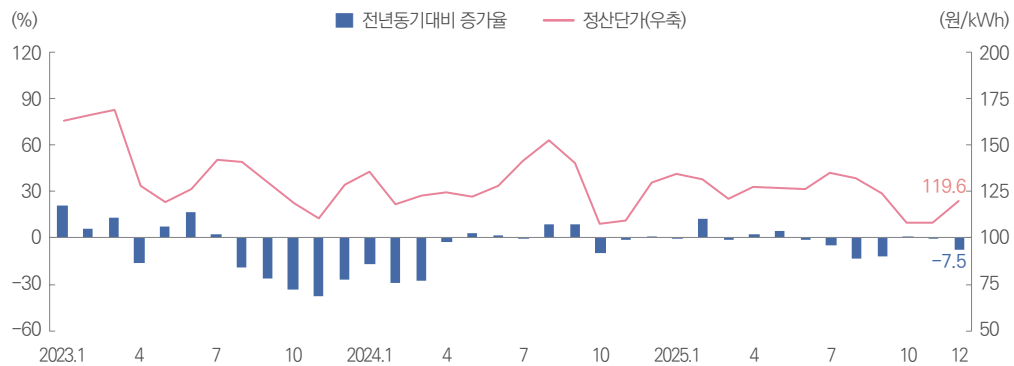
| 그림 14 | 계통한계가격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2025년 12월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kWh당 정산단가는 119.6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5% 하락
 - 정산단가(원/kWh): ('25.10월) 107.4 → (11월) 107.5 → (12월) 119.6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10월) 0.7 → (11월) -1.1 → (12월) -7.5

| 그림 15 | 정산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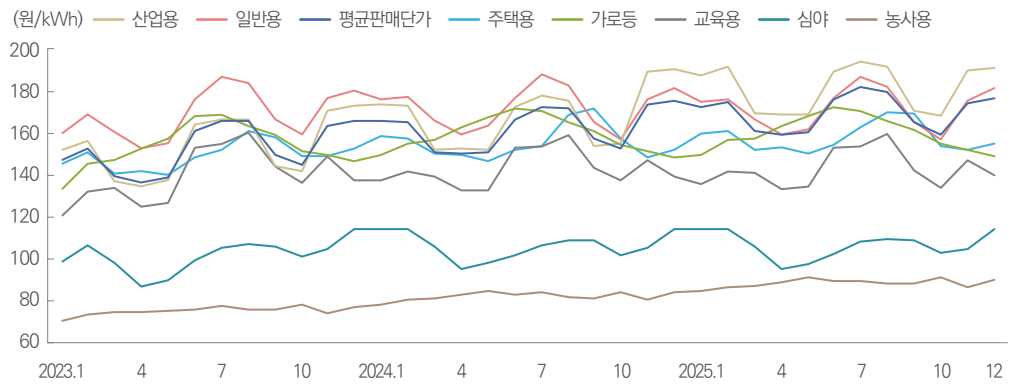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9) 각 지표별 데이터 공표 시점 및 집계 주기의 차이로 인해 연료비단가는 2025년 1월 기준, 전력거래 및 판매 관련 지표(SMP, 정산단가, 판매 단가)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수록함

- 2025년 12월 한국전력이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받은 kWh당 평균 판매단가는 176.7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상승

- 판매단가(원/kWh): ('25.10월) 159.3 → (11월) 174.0 → (12월) 176.7
- 판매단가(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25.10월) 4.2 → (11월) 0.2 → (12월) 0.6
- 1월~12월 누적 판매단가: 170.4원/kWh(전년 동기간 대비 4.6% 상승)
- 계약종별 kWh당 판매단가는 산업용(191.1원)이 전년 동기 대비 0.4% 상승, 일반용(181.7원)은 0.0% 상승, 주택용(155.2원)은 2.1% 상승
- 산업용 판매단가(원/kWh): ('25.10월) 168.2 → (11월) 189.9 → (12월) 191.1
- 일반용 판매단가(원/kWh): ('25.10월) 156.7 → (11월) 175.3 → (12월) 181.7
- 주택용 판매단가(원/kWh): ('25.10월) 153.8 → (11월) 152.1 → (12월) 155.2

| 그림 16 | 계약종별 전력 판매단가



주: 일반용은 주택·산업용 등 타 종별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및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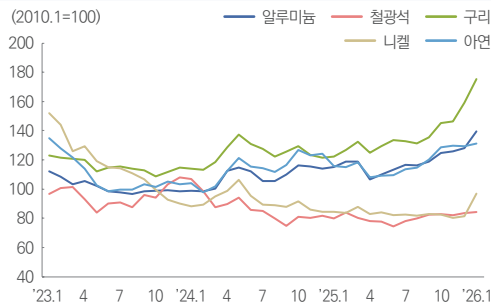
2

비철금속

■ 2026년 1월 「비철금속」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비철금속 가격은 미달러 약세, 미국과 베네수엘라,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0.2%, 전월대비 9.3% 상승
 - 비철금속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11월) 11.9 → (12월) 19.2 → ('26.1월) 30.2
 - 비철금속 가격지수(2010=100): ('25.11월) 119.9 → (12월) 126.3 → ('26.1월) 138.0
- 알루미늄은 중국의 생산 제한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1%, 전월대비 9.3% 상승
 - 알루미늄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9.2 → (12월) 13.2 → ('26.1월) 22.1
 - 알루미늄 가격(달러/톤): ('25.11월) 2,819 → (12월) 2,876 → ('26.1월) 3,142
- 철광석은 선물가격 호조와 중국 내 부동산 및 인프라 시장 심리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0%, 전월대비 0.9% 상승
 - 철광석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2.0 → (12월) 2.3 → ('26.1월) 6.0
 - 철광석 가격(달러/톤): ('25.11월) 102 → (12월) 105 → ('26.1월) 106
- 구리는 데이터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실물 수요 증가와 생산 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4.7%, 전월대비 10.4% 상승
 - 구리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19.1 → (12월) 32.2 → ('26.1월) 44.7
 - 구리 가격(달러/톤): ('25.11월) 10,812 → (12월) 11,785 → ('26.1월) 13,012
- 니켈은 인도네시아의 공급 축소 시사로 전년동월대비 15.4%, 전월대비 19.4% 상승
 - 니켈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6.7 → (12월) -3.6 → ('26.1월) 15.4
 - 니켈 가격(달러/톤): ('25.11월) 14,671 → (12월) 14,884 → ('26.1월) 17,769
- 아연은 중국 외 지역의 정련 아연 부족으로 전년동월대비 14.0%, 전월대비 1.4% 상승
 - 아연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5.7 → (12월) 4.4 → ('26.1월) 14.0
 - 아연 가격(달러/톤): ('25.11월) 3,177 → (12월) 3,168 → ('26.1월) 3,213

| 그림 17 | 비철금속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 LME

| 표 4 | 비철금속 가격 동향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1월	11월	12월	1월		
알루미늄	2,573	2,819	2,876	3,142	22.1	9.3
철광석	100	102	105	106	6.0	0.9
구리	8,991	10,812	11,785	13,012	44.7	10.4
니켈	15,394	14,671	14,884	17,769	15.4	19.4
아연	2,819	3,177	3,168	3,213	14.0	1.4

자료: 세계은행, 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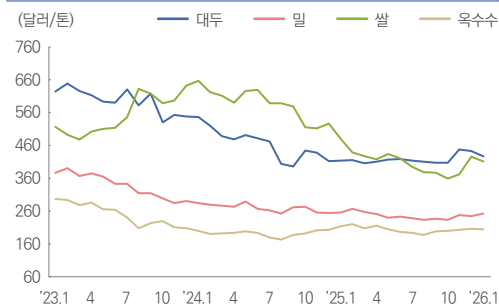
3

농산물

■ 2026년 1월 「농산물」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²⁰⁾

- 농산물 가격은 옥수수와 쌀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9%, 전월대비 0.5% 하락
 - 농산물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11월) -4.7 → (12월) -8.3 → ('26.1월) -8.9
 - 농산물 가격지수(2010=100): ('25.11월) 112.5 → (12월) 112.1 → ('26.1월) 111.5
- 옥수수의 경우 미국의 2025년 4분기 재고량 증가와 시장 예측을 상회하는 생산량 증가 전망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6% 하락
 - 옥수수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0.3 → (12월) 1.5 → ('26.1월) -4.6
 - 옥수수 가격(달러/톤): ('25.11월) 202 → (12월) 206 → ('26.1월) 204
- 대두의 경우 미국 내 내수 가공 수요 확대, 중국의 미국산 콩 수입 수요 회복 기대감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0% 상승
 - 대두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2.3 → (12월) 7.5 → ('26.1월) 3.0
 - 대두 가격(달러/톤): ('25.11월) 446 → (12월) 440 → ('26.1월) 423
- 소맥의 경우 미국, 호주 등 주요국의 풍부한 공급여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6% 하락
 - 소맥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3.1 → (12월) -3.7 → ('26.1월) -1.6
 - 소맥 가격(달러/톤): ('25.11월) 246 → (12월) 243 → ('26.1월) 250
- 쌀의 경우 해외 수요 부진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4.6% 하락
 - 쌀 가격(전년동월대비, %): ('25.11월) -28.0 → (12월) -19.5 → ('26.1월) -14.6
 - 쌀 가격(달러/톤): ('25.11월) 368 → (12월) 424 → ('26.1월) 408

| 그림 18 | 농산물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CME

| 표 5 | 농산물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1월	11월	12월	1월		
옥수수	214	202	206	204	-4.6	-0.6
대두	411	446	440	423	3.0	-3.8
밀	254	246	243	250	-1.6	2.9
쌀	478	368	424	408	-14.6	-3.8

자료: 세계은행, CME

20) 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IV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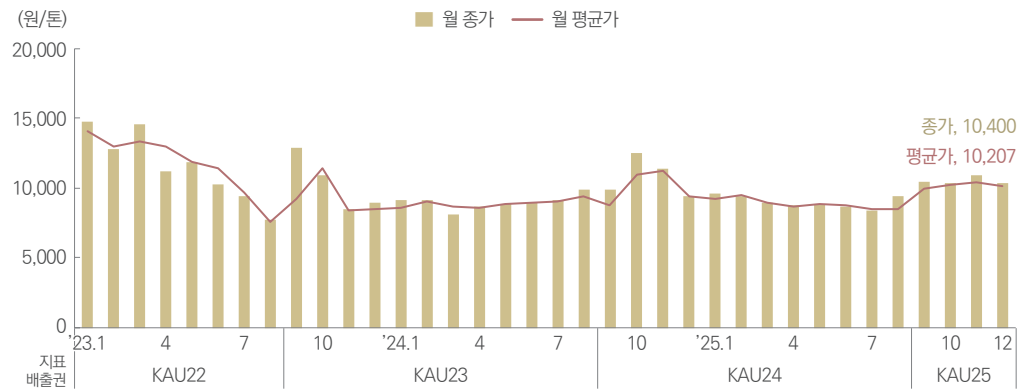
1

배출권거래²¹⁾

■ 12월 「지표배출권(KAU25)」의 전월대비 평균가와 종가 모두 하락

- KAU25²²⁾ 평균가는 톤당 10,207원으로 전월(10,456원) 대비 249원 하락
 - KAU25 평균가(원/톤): ('25.10월) 10,298 → (11월) 10,456 → (12월) 10,207
- KAU25 종가는 톤당 10,400원으로 전월(11,000원) 대비 600원 하락
 - KAU25 종가(원/톤): ('25.10월) 10,400 → (11월) 11,000 → (12월) 10,400
- KAU25의 최저가는 톤당 9,980원('25.12.23), 최고가는 10,800원('25.12.1)을 기록

| 그림 1 | 배출권 장내가격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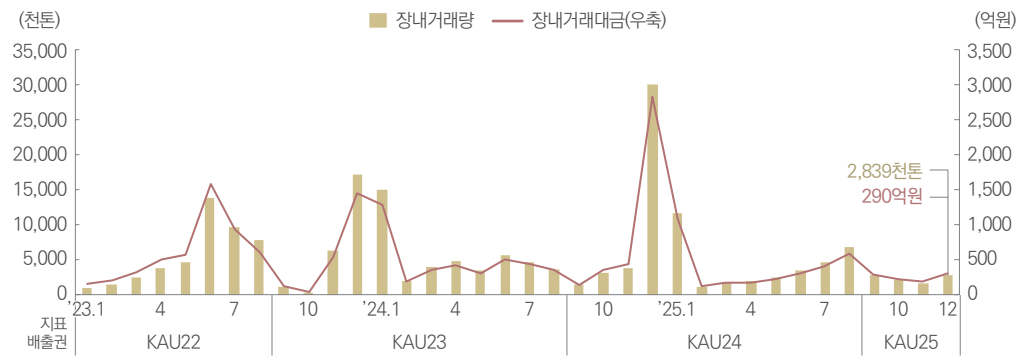
21)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은 ① 할당 배출권(KAU) ② 상쇄배출권(KCU)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구분되며 「NABO 산업동향&이슈」에서는 주요 배출권인 할당 배출권 KAU를 살펴봄

22) 배출권거래제에서 KAU(Korean Allowance Unit)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이며, 1KAU는 이산화탄소(CO₂) 1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의미. KAU 뒤에 붙는 숫자는 해당연도의 탄소배출권을 나타냄

■ 12월 「지표배출권(KAU25)」의 전월대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증가

- KAU25의 거래량은 8,049천톤으로 전월대비 2,813천톤 증가
 - KAU25 거래량(천톤): ('25.10월) 4,568 → (11월) 5,237 → (12월) 8,049
- KAU25의 장내거래량은 2,839천톤, 유상할당(경매)량은 4,350천톤, 장외거래량은 860천톤
 - KAU25 장내거래량(천톤): ('25.10월) 2,068 → (11월) 1,635 → (12월) 2,839
- KAU25의 거래대금은 837억원으로 전월대비 288억원 증가
 - KAU25 거래대금(억원): ('25.10월) 480 → (11월) 549 → (12월) 837
- KAU25의 장내거래 대금은 290억원, 유상할당(경매) 대금은 458억원, 장외거래 대금은 90억원
 - KAU25 장내거래대금(억원): ('25.10월) 213 → (11월) 171 → (12월) 290

| 그림 2 | 배출권 장내 거래량 및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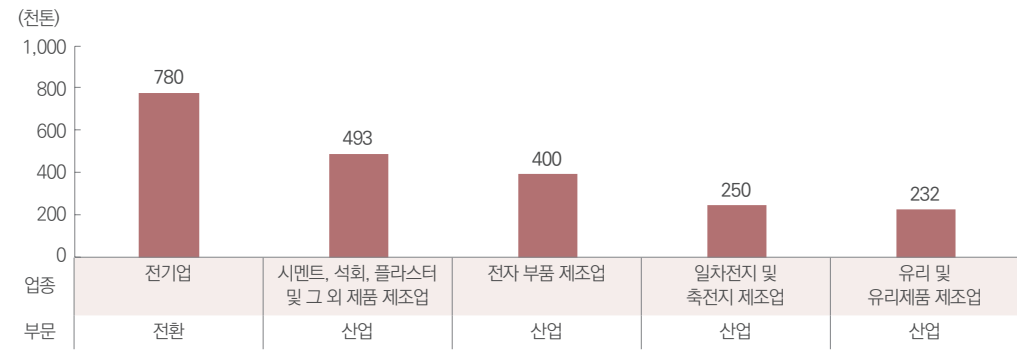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12월 업종별 장내거래 최대 매수업은 전기업, 최대 매도업은 1차 철강 제조업

- 매수 상위 3개 업종은 ①전기업, ②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③전자 부품 제조업 순
- 업종별 매수량(천톤): 전기업(78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493), 전자 부품 제조업(400), 전자 부품 제조업(400)

| 그림 3 | 매수 상위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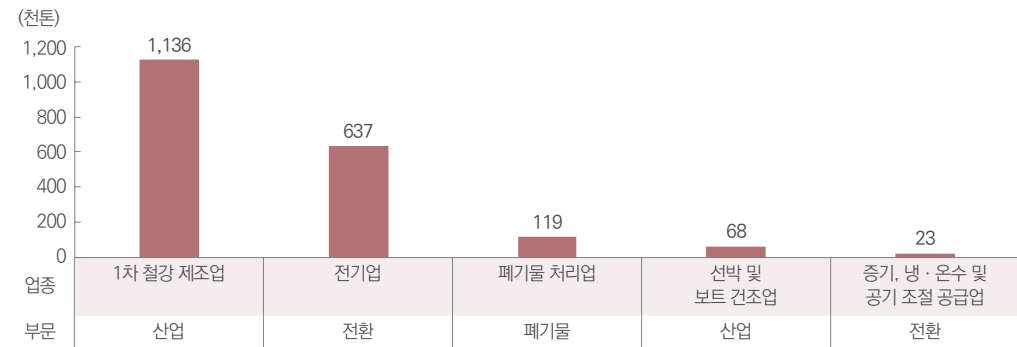


주: KAU25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매도 상위 3개 업종은 ①1차 철강 제조업, ②전기업, ③폐기물 처리업 순
- 업종별 매도량(천톤): 1차 철강 제조업(1,136), 전기업(637), 폐기물 처리업(119)

| 그림 4 | 매도 상위업종



주: KAU24, 25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2

재활용가능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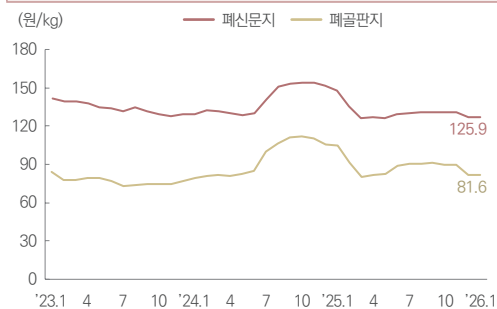
■ 1월 조사일²³⁾ 기준 「국내 폐지」 평균가격은 폐신문지와 폐골판지 모두 전월 수준을 지속

- 폐신문지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0.4원 하락하여 125.9원
- 폐신문지(원/kg): ('25.11월) 130.0 → (12월) 126.3 → ('26.1월) 125.9
- 폐골판지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0.1원 하락하여 81.6원
- 폐골판지(원/kg): ('25.11월) 89.6 → (12월) 81.7 → ('26.1월) 81.6

■ 1월 조사일 기준 「국내 폐플라스틱」 평균가격 중 PP(플레이크)는 상승한 반면, PET(압축), EPS(잉고트), PP(펠렛)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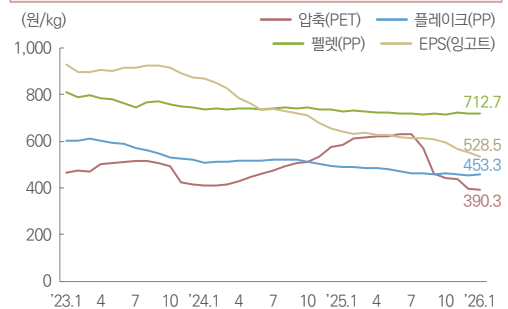
- PET²⁴⁾ 압축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2원 하락하여 390.3원
- PET 압축(원/kg): ('25.11월) 435.5 → (12월) 392.5 → ('26.1월) 390.3
- PP²⁵⁾ 플레이크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2원 상승하여 453.3원
- PP 플레이크(원/kg): ('25.11월) 455.0 → (12월) 452.1 → ('26.1월) 453.3
- PP 펠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2원 하락하여 712.7원
- PP 펠렛(원/kg): ('25.11월) 717.8 → (12월) 714.9 → ('26.1월) 712.7
- EPS²⁶⁾ 잉고트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0.4원 하락하여 528.5원
- EPS 잉고트(원/kg): ('25.11월) 562.3 → (12월) 548.9 → ('26.1월) 528.5

| 그림 5 | 전국 폐지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그림 6 | 전국 폐플라스틱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3) 한국환경공단은 매월 10일 5종 26개 품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시행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를 발표

24)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은 무색이며 단단하고 충격에도 비교적 강한 플라스틱으로 음료수병, 생수병 등으로 활용

25) PP (Polypropylene)는 가벼우며, 내화학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으로 주류, 음료 상자 등으로 활용

26) EPS (Expanded Polystyrene)는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한 후 증기로 부풀린 발포 제품으로 흔히 스티로폼(상품명)이라 부르며 전자제품, 식품 포장 등으로 활용

■ 1월 조사일 기준 「폐유리병」 평균가격은 백색, 갈색, 청록색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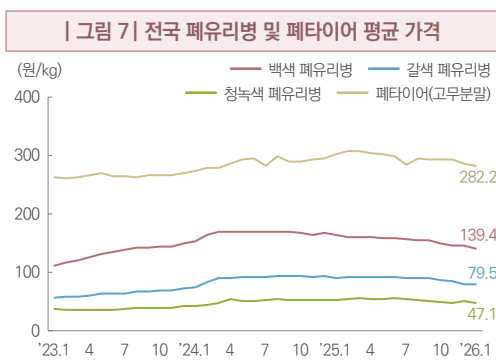
- 유리병(백색) 컬렛²⁷⁾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6.6원 하락하여 139.4원
 - 유리병(백색) 컬렛(원/kg): ('25.11월) 145.4 → (12월) 146.0 → ('26.1월) 139.4
- 유리병(갈색) 컬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0.8원 하락하여 79.5원
 - 유리병(갈색) 컬렛(원/kg): ('25.11월) 85.1 → (12월) 80.3 → ('26.1월) 79.5
- 유리병(청록색) 컬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3.7원 하락하여 47.1원
 - 유리병(청록색) 컬렛(원/kg): ('25.11월) 48.6 → (12월) 50.8 → ('26.1월) 47.1

■ 1월 조사일 기준 「페타이어(고무분말)」 평균가격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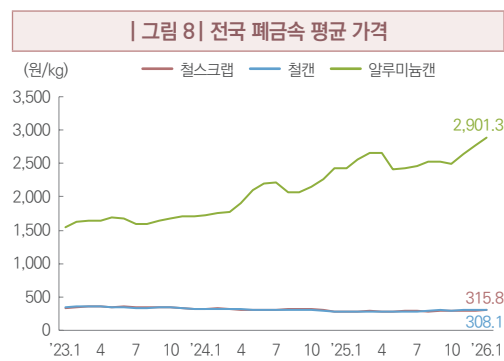
- 페타이어(고무분말)²⁸⁾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7원 하락한 282.2원
 - 페타이어(고무분말, 원/kg): ('25.11월) 292.9 → (12월) 284.9 → ('26.1월) 282.2

■ 1월 조사일 기준 「폐금속」 평균가격은 철스크랩, 철캔, 알루미늄캔 모두 상승

- 철스크랩²⁹⁾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1.6원 상승하여 308.1원
 - 철스크랩(원/kg): ('25.11월) 295.0 → (12월) 296.5 → ('26.1월) 308.1
- 철캔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3.6원 상승하여 315.8원
 - 철캔(원/kg): ('25.11월) 309.5 → (12월) 312.2 → (1월) 315.8
- 알루미늄캔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22.8원 상승하여 2,901.3원
 - 알루미늄캔(원/kg): ('25.11월) 2,649.3 → (12월) 2,778.5 → ('26.1월) 2,901.3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7) 컬렛(Cullet)은 유리병을 일정 크기로 파쇄한 상태

28) 페타이어를 분쇄하여 가루 형태로 만든 재활용 소재

29) 사용 후 폐기된 철강 제품이나 철을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회수한 것으로 고철이라고도 함



산업 이슈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의 의의와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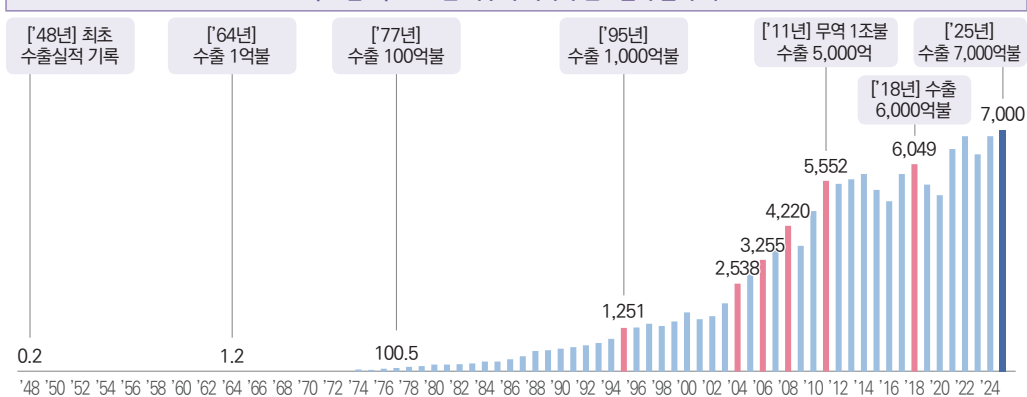
산업자원분석과 | 권일 과장

1 검토배경

■ 2025년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77년 만에 연간 수출 7천억 달러를 최초 달성

-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이후 첫째 수출액 1,900만 달러에서 36,000배 이상 성장한 결과로 매년 14.6%씩 꾸준히 증가(연평균 증가율, CAGR)¹⁾²⁾
 - 수출액 1억 달러(1964년, 1억 16백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로는 61년 만에 약 5,958배, 연평균 (CAGR) 15.3% 성장³⁾
- 1960년대 이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 부존자원 부족과 내수시장 규모가 작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
 -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간 경제성장 전략으로써 수입대체 정책보다는 수출지향 정책을 채택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

그림 1 | 1948년 이후 우리나라 연도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동향」, “당당히 수출 강국 반열 오른 대한민국, 세계 6번째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2025.12.29.

1)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K-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다.」, 2025.12.29.

2) 한국무역협회의 「K-stat 무역통계」는 우리나라 수출입통계를 1956년부터 제공. 함께 제공되는 IMF 세계통계는 1948년부터 제공하나 1948년 수출액은 0으로 표시되고 있음. 참고로 IMF 통계상으로는 1949년 1,100만 달러 수출을 기록

3)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의 국내통계에 따르면 1964년 1.2억 달러, 2025년 7,094.1억 달러

■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여건과 내수 부진 속에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는 평가

- 그러나 2025년 수출의 외형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는 몇 가지 우려 요인이 내재
 - 수출이 반도체에 집중되는 '반도체 쏠림' 현상의 심화로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 저하에 대한 우려 제기⁴⁾
 - 우리나라 반도체는 최종수요 구조에서 모바일(44.0%)과 데이터센터 서버(20.6%) 비중이 매우 높아 국내 반도체 경기는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업황과 투자에 큰 영향을 받아 경기 변동성에 취약⁵⁾
- 수출 상위 10개 품목이 수십여 년간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석유, 화학, 철강, 일반기계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는 향후 과제⁶⁾
 -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 변화 속도(구조변화지수, Structural Change Index)가 완만해지며 역동성 저하,⁷⁾⁸⁾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 한계 노출

■ 우리나라 수출은 2026년에도 증가할 전망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환율 변동성 등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제한적 성장 전망⁹⁾

- 국제기구(IMF, 세계은행, OECD)는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세계교역량 성장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
 -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6~3.3%로 2025년 2.7~3.3%에 비해 소폭 둔화 전망
 - 그러나 2026년 세계교역량 성장률은 2.2~2.6%로 전망되어, 2025년 3.4~4.2%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 축소 전망

■ 이하에서는 수출 7천억 달러 달성과 향후 수출 여건을 평가하고, 우리보다 앞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해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

- 우리나라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의의와 수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 상위품목 변화 등 성장 동력의 수출 여건을 분석
- 우리나라보다 앞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이하 수출 7천억 달러 클럽) 중에서 우리나라와 수출 구조가 유사한 독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

4)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2019년과 2023년 각각 25.9%, 23.7%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2019년 10.4%, 2023년 7.5% 감소

5) 한국은행,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경제전망보고서(2023년5월)」, 2023.5.30.

6) 본고의 [표] 우리나라 상위 10위 수출 품목 추이 참조

7) 이진우,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저하」, 『i-KIET 산업경제이슈』, 산업연구원, 제111호(2021-10), 2021.5.24.

8) 산업 전체의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구조변화지수(Structural Change Index)는 2010년대에 들어와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9) 한국무역협회,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TRADE FOCUS』 2025년 32호, 2025.12.05.

2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의 의의와 수출 여건 진단

가.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의 역사적 의의

■ 2025년 중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

- 2025년 우리나라 수출은 2024년(6,836억 달러)대비 3.8% 증가한 7,094억 달러를 기록¹⁰⁾
 -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6번째
 - 네덜란드가 유럽의 물류허브로 가공·중계무역이 중심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글로벌 5대 수출 강국'으로 평가¹¹⁾
- 2018년 6천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의 성과로, 한국의 글로벌 경제적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했음을 의미
 - 연간 수출액(달러), 소요 기간: (1995년) 1,000억 → (2004년) 2,000억, 9년 → (2006년) 3,000억, 2년 → (2008년) 4,000억, 2년 → (2011년) 5,000억, 3년 → (2018년) 6,000억, 7년 → (2025년) 7,000억, 7년
 - 수출 6천억 달러 달성은 미국(1996년), 독일(2002년), 중국(2005년), 일본(2006년), 프랑스(2008년), 네덜란드(2008년)에 이은 세계 7번째였으나,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은 프랑스를 추월

■ 6천억 달러 달성 이후 7천억 달러 달성에 걸린 기간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지체되었고, 네덜란드보다는 단축

- 네덜란드는 물류/농식품/에너지 기반의 중계가공 무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변 EU 국가들의 경기 상황, 글로벌 물류 공급망 불안 등으로 수출 성장 속도 지체
 - 2010~2015년 유로존 재정위기로 유럽 국가들의 경기 회복 지연
- 우리나라는 공급망 불확실성, 반도체 쏠림 등 구조적 문제와 코로나19 등으로 지체
 - 2020년부터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와 경기 둔화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2020년 이후 2022년과 2025년에만 대중국 수출이 증가)
 - 미중 갈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에 더해 2020~2021년 기간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출 성장세가 정체
 - 반도체 편중 구조로 반도체 업황에 따라 수출 전체가 널뛰는 구조적인 약점과 철강, 조선, 화학 등 전통적 주력산업의 경쟁 심화와 기술 격차 축소

10)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11) 네덜란드(2023년 기준)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주변 EU 국가이며, 중계·가공무역 비중(2023년 기준 수입액의 40% 이상)이 높고 농식품, ICT 관련 품목 등을 주로 수출(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 2024). 2023년 수입액 8,432억 달러를 고려하면 중계·가공 수출액은 약 3,373억 달러로 추산

| 표 1 | 주요국 수출액별 최초 달성 연도

(단위: 년)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1,000억	1975	1976	1994	1979	1979	1988	1995
2,000억	1980(5)	1986(10)	2000(6)	1986(7)	1990(11)	1995(7)	2004(9)
3,000억	1988(8)	1988(2)	2002(2)	1991(5)	1995(5)	2004(9)	2006(2)
4,000억	1991(3)	1990(2)	2003(1)	1995(4)	2004(9)	2005(1)	2008(2)
5,000억	1994(3)	1995(5)	2004(1)	2004(9)	2007(3)	2007(2)	2011(3)
6,000억	1996(2)	2002(7)	2005(1)	2006(2)	2008(1)	2008(1)	2018(7)
7,000억	2000(4)	2003(1)	2005(0)	2007(1)	-	2018(10)	2025(7)

주: 1. ()는 1,000억 달러 달성 후 다음 단계 달성에 걸린 기간

2. IMF 세계통계와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입통계는 통계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의 IMF 세계통계

■ 미국발 관세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환경과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뚫고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

- 내수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이 우리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¹²⁾
 -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1.0%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내수 0.6%p,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8%p,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공제) 1.5%p
- 미국발 고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속해서 해당 월 최고 수출액을 경신

| 표 2 | 2025년 월별 수출액

(단위: 억 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출액 (증감률)	491.8 (-10.1)	522.9 (0.4)	580.6 (2.7)	580.4 (3.4)	572.6 (-1.3)	598.3 (4.3)	607.2 (5.7)	582.7 (1.1)	659.1 (12.6)	595.1 (3.5)	607.7 (8.0)	695.4 (13.3)
월별 순위	4위	2위	2위	1위	3위	1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12)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26.1.22.

나. 시장 다변화와 산업별 성과

■ 미국·중국 중심에서 아세안, EU, 중남미 등으로 수출 지형을 넓히며 시장 다변화가 진행

-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향상 및 공급망 내재화,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두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각각 축소
 - 미·중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24년 38.1%에서 2025년 35.8%로 축소
 - 중국: ('24) 19.5% → ('25) 18.4%, 미국: ('24) 18.7% → ('25) 17.3%

| 표 3 | 9대 주요 수출시장의 2025년 수출 실적

(단위: 억 달러)

지역	중국	미국	아세안	EU(27)	중남미	일본	중동	인도	CIS
금액 (증가율)	1,308 (-1.7)	1,229 (-3.8)	1,225 (7.4)	701 (3.0)	310 (6.9)	283 (-4.4)	204 (3.8)	192 (2.9)	137 (18.6)

주: CIS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연합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

■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 더해 바이오 헬스, K-콘텐츠 연계 소비재 등의 수출도 호조

-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힘입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산업과 바이오 등이 수출 성장을 뒷받침
 - 반도체 및 AI 관련 부품,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 위주로 수출 구조의 체질 개선이 진행
 - 반도체 호황이 전체 수출을 견인했으며,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22.2%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1,734억 달러를 기록
 - 자동차 수출은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EU·중남미·중동 등으로 친환경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대비 1.7% 증가한 719.8억 달러로 역대 수출 1위 기록
 - 조선은 2022~2023년 기간 중 다량 수주한 LNG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높은 가격의 선박 인도가 본격화되며 전년대비 24.1% 증가한 320.3억 달러 달성

| 표 4 | 15대 산업의 2025년 수출 실적

(단위: 억 달러, %)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조선
수출액 (증감률)	1,733.9 (22.2)	169.8 (-9.4)	172.6 (0.4)	137.5 (4.5)	719.8 (1.7)	212.0 (-5.9)	469.1 (-8.3)	320.3 (24.9)
역대 순위	1위	-	-	-	1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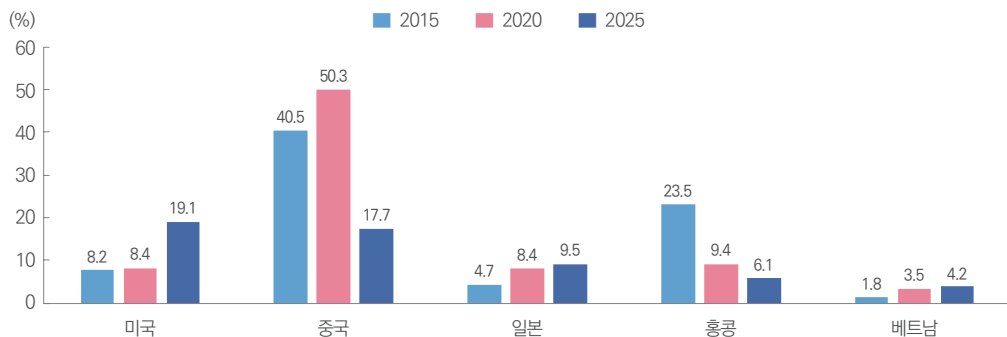
구분	석유	화학	바이오헬스	가전	섬유	철강	이차전지	전체
수출액 (증감률)	454.8 (-9.6)	425.1 (-11.4)	162.7 (7.9)	72.7 (-8.8)	96.8 (-7.5)	303.0 (-9.0)	72.3 (-11.9)	7,096.9 (3.8)
역대 순위	-	-	3위	-	-	-	-	1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

• 바이오헬스, 식품, 화장품 수출이 약진하며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 바이오시밀러(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생산전문기업) 수요 증가에 따라 바이오헬스가 전년대비 7.9% 증가한 163억 달러를 기록
- K-푸드(농수산물)는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더불어 간편 소비가 가능한 가공식품(면류, 김, 커피조제품 등)을 중심으로 10년 연속 성장하며 124억 달러¹³⁾ 수출
- K-뷰티(화장품)가 중소기업 주도로 2024년(102억 달러)에 이어 2025년 1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2.5% 증가. 특히 대중수출 비중이 2020년 50.3%로 과반을 차지했으나, 2025년 32.6%p 감소한 17.7%를 기록. 반면 2025년 대미수출 비중은 10.7%p 증가한 19.1%를 기록하며 대중수출 비중을 상회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

| 그림 2 | 우리나라의 국가별 화장품 수출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6년 무역환경 및 수출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발표 자료, 202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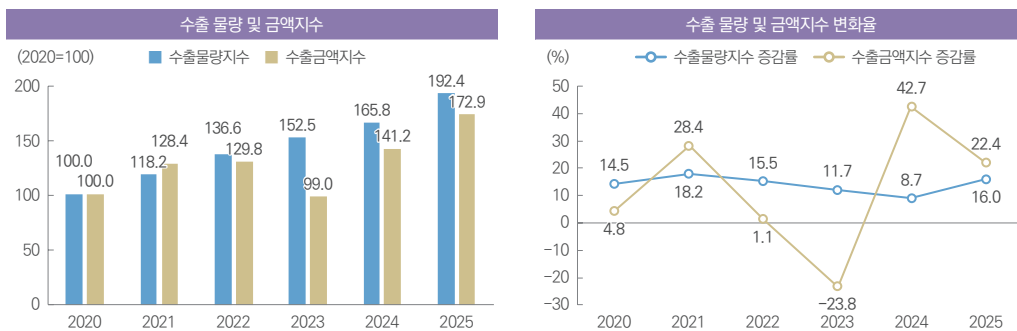
13)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10년간 K-푸드 수출 동향과 시사점(2025.3.6.)」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15년 35.1억 달러에서 2024년 70.2억 달러로 증가

다. 반도체 중심 수출구조의 한계와 산업 역동성 저하

■ 2025년 우리나라 수출의 7천억 달러 달성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착시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

- 반도체 수출(1,734억 달러)이 전년(1,419억 달러)대비 22.2%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가격은 더 가파르게 증가
 - 반도체 D램고정가(달러, '25.1분기~4분기평균): 1.35 → 2.12 → 5.30 → 8.13
 - 반도체 낸드고정가(달러, '25.1분기~4분기평균): 2.33 → 2.94 → 3.53 → 5.09
- 반도체의 경우 수출물량지수보다 수출금액지수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25년 반도체 수출 증가에 더 크게 기여¹⁴⁾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2024년 165.8에서 2025년 192.4로 16.0% 증가하였으나, 수출금액지수는 2024년 141.2에서 2025년 172.9로 24.4% 증가

| 그림 3 | 반도체 수출 물량 및 금액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15대 산업 중 일반기계, 석유, 화학, 철강, 이차전지 등 9개 산업의 수출이 감소하며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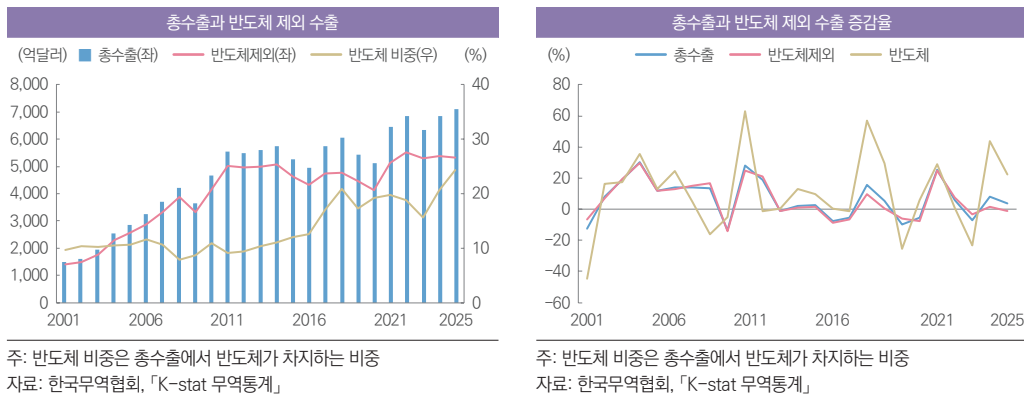
-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2025년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0%로 역성장
 - 반도체 제외 수출액: 2024년 5,417억 달러 → 2025년 5,363억 달러
- 반도체에 자동차(자동차부품 포함)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34.4%에서 2025년 37.6%로 3.2%p 증가하며 수출 품목 쏠림이 심화

14) 수출금액지수는 해당 시점의 달러 기준 수출 금액을 2020년 기준 수출금액과 비교한 지표로, 수출의 전체적인 규모 변화를 보여주고, 수출물량지수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가격 변동 요인을 제거한 실질적인 수출물량의 변화를 측정

- 반도체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9.5%에서 2016년 12.6%, 2025년 24.4%로 추세적으로 증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해에는 총수출 증가율이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보다 높았으나,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한 해에는 총수출이 반도체 제외 수출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남

| 그림 4 | 우리나라의 총수출과 반도체 수출 추이



■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출 구조는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

- 전체 수출의 약 37.6%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쏠림 현상은 향후 경기 변동에 취약
 - 특히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과 달리,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대·중소 기업 간 하도급 거래도 상대적으로 적고, 고용창출이나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작은, 이른바 ‘낙수효과’가 크지 않은 산업¹⁵⁾

■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10대 수출 품목 구성 고착화는 ‘반도체 착시’ 현상과 함께 우리 산업 전반의 활력 저하를 보여줌

- 2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품목 1, 2위를 차지하며 10대 수출품 중 6개 품목이 동일
 - 1991년에는 전체 수출 품목 중 의류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10위 등을 기록하였다가, 1992년 반도체가 1위를 달성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자동차는 1995년부터 2위를 차지한 후 2~3위를 유지

15) 2023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기준 영향력계수(특정 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파급효과)는 자동차 1.335, 반도체 0.793,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 당 자동차 1.0명, 반도체는 0.7명

16) MTI 코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 품목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HS코드를 재분류한 체계, 기술 변화와 산업 환경에 맞춰 개정되며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시장 분석에 활용

| 표 5 | 우리나라 상위 10위 수출 품목

	1985년	1995년	2005년	2015년	2025년
1위	조선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2위	의류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3위	가구	조선	무선통신기기	조선	석유제품
4위	철강판	섬유	조선	무선통신기기	조선
5위	영상기기	영상기기	석유제품	석유제품	합성수지
6위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컴퓨터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7위	석유제품	컴퓨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철강판
8위	인조장섬유직물	의류	철강판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9위	음향기기	철강판	자동차부품	철강판	디스플레이
10위	레이및철구조물	합성수지	영상기기	플라스틱 제품	컴퓨터

주: 품목은 MTI¹⁷⁾ 3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 우리나라 상위 10대 수출 품목의 고착화는 우리 산업의 역동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2021)¹⁷⁾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구조변화 지수’를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변화지수가 2010년대(0.018)에 들어와 1970년대(0.039)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분석

- 구조변화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하하고,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
- 구조변화지수가 낮아지는 것과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추세적 성장을 하락이 관련 있을 가능성
- 또한 높은 진입장벽 등 시장규제에 따른 기업 역동성 저하,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조변화의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

■ 따라서 현재 역성장을 기록 중인 석유, 화학, 철강,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에 대한 제조 혁신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그린에너지 등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체계로의 전환 등 제조 혁신 및 밸류체인 강화
- 화장품, 식품 등 K-콘텐츠 관련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탈피
-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에 대응하여 수출 시장을 미국,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변화할 필요

17) 이건우,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저하」, 『i-KIET 산업경제이슈』, 산업연구원, 제111호(2021-10), 2021.5.24.

■ 또한 수출 호조와 정부의 AI 정책과 연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이 증가, 이를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자금도착(도착기준)도 전년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¹⁸⁾
 - 신고기준(억 달러) : ('22) 304.4 → ('23) 327.1 → ('24) 345.7 → ('25) 360.5
 - 도착기준(억 달러) : ('22) 182.2 → ('23) 199.9 → ('24) 154.3 → ('25) 179.5
- 신고기준 국내 첨단 산업 분야(AI, 반도체, 바이오 등)와 연계된 그린필드 투자 유입은 확대되고, M&A 투자 유입은 감소세 축소
 - 그린필드 신고는 전년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하였고,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전년대비 5.1% 감소
 - 미국·EU발 투자는 증가, 일본·중국발 투자는 감소
-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북미,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¹⁹⁾)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내 유입과 연계 활용할 필요

18)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 2026.1.7.

19)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나갔던 제조 기업이 인건비 상승, 공급망 불안, 물류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3

수출 7천억 달러 달성국의 수출 성장경로 비교

■ 수출 7천억 달러 클럽의 달성 당시 주요 산업과 성장 요인

- 미국(2000년 달성)은 첨단 IT기술(소프트웨어, 항공우주), 정밀 기계, 에너지(LNG), 금융 서비스
 - 글로벌 달러 패권, 기술 주도형 산업구조, 대규모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
- 독일(2003년 달성)은 자동차, 기계, 화학, 의약품 등 고품질 기술 집약적 제품
 - 숙련된 기술 인력(마이스터 제도), 중소기업(Hidden Champion)의 탄탄한 수출경쟁력, EU 단일 시장 활용
- 중국(2005년 달성)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저렴한 인건비와 압도적인 생산 능력
 - WTO 가입(2001년) 이후 대외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및 제조업 전반의 수출 급증
- 일본(2007년 달성)은 자동차, 고정밀 기계, 전자 부품, 소재(Material) 산업
 - 탄탄한 부품·소재 공급망, 고부가가치 제조업 위주의 수출 포트폴리오
- 네덜란드(2018년 달성)는 농식품, 석유제품, 하이테크(반도체 장비), 고정밀 기계, 전자 부품, 소재(Material) 산업
 - 로테르담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물류·재수출 및 농식품 허브
- 한국(2025년 달성)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과 바이오 산업
 - AI 관련 반도체 생산 및 고부가가치 선박(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능력

| 표 6 | 수출 7천억 달러 클럽의 달러 달성 시점 및 특징

국가	달성 연도	주요 성장 동력	특징
미국	2000	고부가가치 산업재, 항공우주, 기술 서비스 및 에너지	세계 최초 달성
독일	2003	정밀기계,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 경쟁력 기반의 유럽 수출 리더	유럽 국가 중 최초
중국	2005	세계의 공장 역할, 가전·IT 기기에서 반도체 등 첨단 제품으로 고도화	가장 빠른 성장세 기록
일본	2007	자동차, 전자, 소재·부품 장비 분야의 강력한 기술력	아시아에서 두 번째 달성
네덜란드	2018	로테르담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물류·재수출 및 농식품 허브	중계무역
한국	2025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첨단 제조 품목의 압도적 비중	개발도상국 졸업 국가 중에서 첫 번째 달성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 수출 7천억 달러 클럽 국가들의 수출 동력을 기준으로 제조업 고도화형, 거대 내수 기반 확장형, 공급망 허브화형으로 구분

- 첨단 제조 역량 중심의 제조업 고도화형(독일, 일본, 한국)
 - 정밀기계, 자동차, 화학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및 고부가가치화(독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내 핵심 지위(일본)
 - 반도체, 이차전지, LNG선 등 첨단 전략 산업 중심의 표준 제조 역량(한국)
-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거대 내수 기반 확장형(미국, 중국)
 - 압도적인 규모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 고른 수출 실적을 기록
 - 첨단 기술(Big Tech), 에너지(셰일가스), 농산물, 금융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압도적인 자본력과 소비 시장을 기반으로 수출 역량을 강화(미국), '세계의 공장'을 넘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중국)
- 물류 및 중개 무역 중심의 공급망 허브형(네덜란드)
 -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중개 무역과 물류 시스템을 극대화하며, 유럽 대륙의 관문(로테르담항, Port of Rotterdam) 역할을 통해 막대한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

■ 7천억 클럽 가입 후 2024년까지 중국은 수출이 가파르게 확대 중이고, 미국, 독일, 네덜란드는 완만히 증가, 일본은 감소²⁰⁾

- 중국은 2005년 수출 6천억과 7천억 달러를 동시에 달성한 이후 19년 만에 4.7배 정도의 규모(2024년, 3조 5,803억 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8.5%(19년), 평균 1,483억 달러 증가
- 미국은 2000년 수출 7,721억 달러에서 2024년 2조 654억 달러로 연평균 4.2%(24년), 평균 539억 달러 증가
 - 미국은 2020년까지는 연평균 4.0%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 당시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9.6% 증가
- 독일은 2003년 수출 7,422억 달러에서 2024년 1조 5,303억 달러로 연평균 3.5%(21년), 평균 375억 달러 증가
- 네덜란드는 2018년 수출 7,267억 달러에서 2024년 8,602억 달러로 연평균 2.9%(6년), 평균 223억 달러 증가
- 반면 일본의 경우 2007년 수출 7천억 달러 최초 달성 이후 수출 실적이 6천억~7천억 달러대에서 횡보하며 2024년까지 연평균 -0.1%(17년), 평균 4억 달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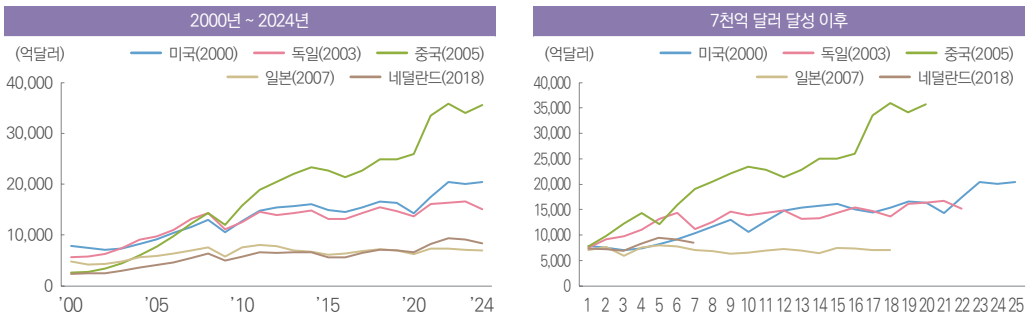
20) 국제무역 통계는 2025년은 1~9월까지만 제공됨으로 2024년을 기준으로 작성

| 표 7 | 수출 7천억 클럽 현황

	수출액(2024년)	달성 연도	경과 년수	달성 후 연평균 증감
미국	20,654	2000	24	539
독일	15,303	2003	21	375
중국	35,803	2005	19	1,483
일본	7,075	2007	17	-4
네덜란드	8,602	2018	6	223

주 : 경과 년수는 6천억 달러 달성 이후 2018년까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의 IMF 세계통계

| 그림 5 | 7천억 달러 달성 이후 주요국의 연도별 수출 추이



주 : ()는 7천억 달러 달성 연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의 IMF 세계통계

주 : 1. ()는 7천억 달러 달성 연도
2. 달성시점 = 1
3. 2000년~2024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의 IMF 세계통계

■ 우리나라는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중에서 공급망 허브형인 네덜란드 다음으로 경제 규모 대비 수출액 비중이 높은 수준

- 2024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조 8,699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했으나, 대세계 수출은 6,836억 달러로 세계 6위
 - GDP대비 수출규모는 네덜란드(70.6%), 한국(36.6%), 독일(35.7%), 중국(19.6%), 일본(17.4%), 미국(7.1%) 순

| 표 8 |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국가의 GDP 대비 수출액 비중(2024년 기준)

국가	GDP		수출		GDP 대비 수출액
	순위	명목GDP	순위	명목GDP	
미국	1	29,168	2	2,065	7.1
독일	3	4,710	3	1,530	35.7
중국	2	18,273	1	3,580	19.6
일본	4	4,070	5	707	17.4
네덜란드	18	1,218	4	860	70.6
한국	12	1,870	6	684	36.6

자료 : 유서경,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2024년)」,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5년 6호.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9년 중국이 독일을 추월한 후 현재까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냄

- 2002년까지는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2003년~2008년 기간에는 독일이, 200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음
 - 2024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15.1%이고, 2021년 15.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
- 우리나라는 2000년~2024년 기간 중 2%~3%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해는 2015년으로 3.2%를 기록
- 2000년 시장점유율 7.5%를 기록했던 일본은 2024년 3.0% 기록하면서 2.9%를 기록한 우리나라와 0.1%p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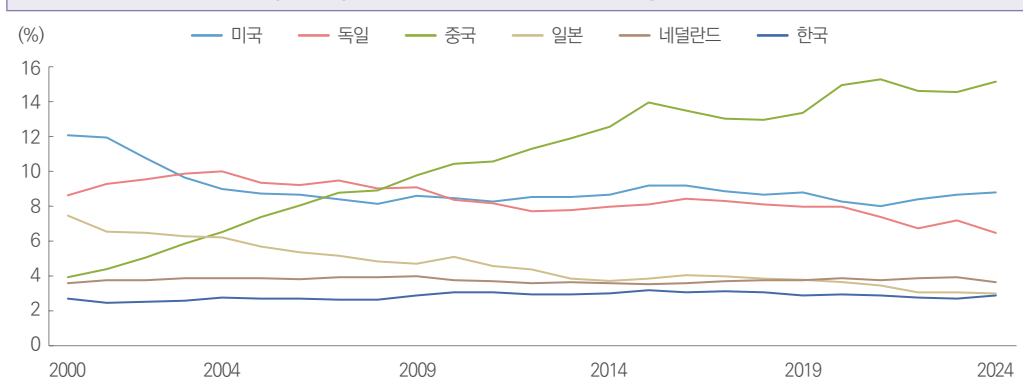
| 표 9 | 수출 7천억 클럽 국가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2000	2004	2009	2014	2019	2024
미국	12.1	9.0	8.6	8.7	8.8	8.7
독일	8.6	10.0	9.1	8.0	7.9	6.5
중국	3.9	6.5	9.7	12.5	13.3	15.1
일본	7.5	6.2	4.7	3.7	3.8	3.0
네덜란드	3.6	3.9	4.0	3.6	3.8	3.6
한국	2.7	2.8	2.9	3.1	2.9	2.9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의 IMF 세계통계

| 그림 6 | 수출 7천억 클럽 국가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6년 무역환경 및 수출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발표 자료, 2026.2.6.

4

독일과 일본 사례

■ 독일은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이후 높은 기술력과 글로벌 분업 구조를 통해 수출 전성기를 누렸으나, 현재는 산업구조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 전환이라는 전환점에 위치

- 독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기계설비, 화학, 전기/전자 제품이며, 2011~2013년 중에는 중국을 제치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 세계 1위를 유지
 - 산학연 협력으로 숙련된 기술 인력 양성과 높은 수준의 R&D 투자가 고품질 제품 생산으로 연결
- 유로화 도입에 따른 환율 효과, 미텔슈탄트(Mittelstand, 중소기업)의 기술력, 신흥국 수요 포착 등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
 - 유로화 도입으로 인해 환율 안정성 및 상대적 저평가 효과가 독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 기계, 자동차, 화학 등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1,300여 개 이상의 히든챔피언(기술력 기반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였고, 특히 전 세계적 투자 붐에 따른 자본재 수요 증가로 수혜
 -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에 발맞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생산 거점을 동유럽 등지로 아웃소싱하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
- 그러나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높은 에너지 가격,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디지털 전환 지체, 관료주의적 문화로 혁신이 지연되며 수출 경쟁력 저하
 -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 등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독일의 수출 중심 모델이 압박을 받고 있음
 - 비싼 인건비 및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독일의 높은 생산 비용은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관료주의적 기업 문화가 혁신을 지연
- 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연되면서, 높은 생산 비용에 더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 등의 복합 위기를 맞으며 심각한 부진
 - 전통적인 내연기관 강자라는 지위에 안주해 전기차(EV) 전환 실패 및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지연
 - 중국기업의 약진으로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이 하락하며 점유율 급감, 이는 과거 중국 내 생산을 위해 현지 업체에 기술을 이전한 것이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해 독일 자동차 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독일 자동차 등의 미국 수출에 큰 타격

■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7천억 달러 달성 이후 신흥국의 성장과 글로벌 디지털화 추세 등 대외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장기적인 수출 정체 상황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1990년대 버블 붕괴의 후유증(부채 조정) 및 구조개혁 지연, 그리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고착화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 저성장
 - 초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췄으며, 노동력 부족은 경제 활력을 저하
 - 자산 가격 폭락 후 기업들이 부채 축소(디레버리징)에 집중하면서 투자와 임금이 정체되었고, 산업 효율성 개선(구조조정)이 지체
- 2008년 이후 급격한 엔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어 일본 제품의 달러 기준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력 저하
 - 엔고의 여파로 인해 해외로 제조업의 이전(생산기지 공동화)이 지속되면서, 일본산 제품의 직접 수출 물량감소
- 한국, 중국 등이 IT, 전자, 자동차 등에서 빠르게 추격하는 동안 일본 산업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 등이 지연되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며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 부품·소재 분야에서 경쟁국의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강점이었던 고기능 부품 및 소재 분야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
- 장기적인 저 성장과 고령화로 인해 내수시장이 위축되었고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위축과 기술혁신 지체로 수출경쟁력 하락
 - 장기간 지속된 저물가 기조는 소비자들의 소비 지연과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져 유효수요를 위축
 -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과 보수적인 경제 체질,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성장 정체
-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디지털 전환 대응이 지연되며 생산성 향상이 미흡했고, 대규모 양적 완화로 경기를 부양하려 했던 아베노믹스도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아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에 한계

■ 수출 7천억 달러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에게 독일의 ‘디지털 전환 지체’와 일본의 ‘인구 절벽 및 구조개혁 실기’는 시의적절한 정책 시행의 중요성을 시사

-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양국은 모두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전통적인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 높은 품질 경쟁력을 유지했으나, 중국 시장 수요 감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디지털 전환의 압박에 직면
 - 글로벌 보호무역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역구조(공급망 다변화) 확립을 위해 미·중에 대한 시장 편중을 낮추고, 인도·아세안 등 포스트 차이나(Post-China)로 수출 거점 다변화를 모색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및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
 - 또한 친환경 제조업 전환을 통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에 대응
-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품질 경쟁력 우위 상품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소재·부품·장비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진 필요
 - 독일 자동차 사례를 참고해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이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만 머물지 않도록 AI 융합 및 제조 공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신속 추진

5

요약 및 시사점

- **2025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대비 3.8% 증가하면서 7천억 달러를 최초로 돌파하며, 미국발 관세 인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
 - 그러나 2025년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수출은 2024년 대비 1.0% 감소하며, 반도체 쏠림 현상과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착시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
 - 2026년에도 수출 증가가 전망되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환율 변동성 등은 잠재적 위험 요인
- **수출 호조와 연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 추진 기회를 제공**
 - 국내 첨단 산업 분야(AI, 반도체, 바이오 등)와 연계된 그린필드 투자 유입 확대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기준)는 360.5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
- **수출 7천억 달러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에게 독일의 '디지털 전환 지체'와 일본의 '인구 절벽 및 구조개혁 실기'는 시의적절한 정책 시행의 중요성을 시사**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및 인공지능(AI) 도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
 - 반도체, 자동차 등 현재의 주력산업이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만 머물지 않도록 AI 융합 및 제조 공정의 인공지능 전환(AI)을 신속 추진, 서비스화(Servitization)²¹⁾를 통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확보
 - 또한 친환경 제조업 전환을 통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에 대응
-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수출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수출 품목 다변화 추진, 공급망 안정화 및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필요**
 - 반도체 부문의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동차, 선박, 바이오, K-푸드 등 신성장 동력 품목을 육성하고,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기술 추격에 맞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기술 우위를 지속 유지
 - 글로벌 보호무역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역구조(공급망 다변화) 확립을 위해 미·중에 대한 시장 편중을 낮추고, 인도·아세안 등 포스트 차이나(Post-China)로 수출 거점 다변화를 모색

21) 제조기업 또는 제조산업의 밸류체인에 서비스를 융합함으로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만족도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

- 특정 공급망 의존도 완화 및 안정적인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적·정책적 노력에 더해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으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우리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을 적극 추진
 -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북미,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여건이 조성되는 추세이므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내 유입과 연계 활용
- 단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로드맵 수립
 - 글로벌 탄소규제(CBAM 등)에 대응한 친환경 수출 생태계 조성과 AI 기술을 융합한 제조 경쟁력 강화 등 산업 구조의 친환경·인공지능 전환 추진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2026년 2월호 통권 제80호

발행일 2026년 2월 25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7-001585-06

ISSN 3058-985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